

강남구 지방세발전 연구동아리

2025 강남 드림 택스

Gangnam Dream Tax

- AI가 전하는 강남 세무행정 이야기 -



축사

2025년 강남구 지방세발전 연구동아리의 활동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안녕하십니까.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만들고 있는 **강남구청장 조성명**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혁신의 최전선입니다. 이러한 토대를 마련하기 까지 구 재정 확충과 납세자 권리 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완수해 온 세무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발간하는『2025 강남 드림 텍스 – AI가 전하는 강남 세무행정 이야기』는 여러분의 치열했던 1년을 AI의 시선에서 한 편의 ‘스토리북’으로 엮어 냈습니다. 단순한 업무 실적의 나열을 넘어, 적극행정의 중심에서 땀 흘려 온 여러분의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와 깊은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벌맞춰, AI 지방세 도우미(GPTS)와 인공지능 환급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스마트 세정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IBS) 가산율 폐지 및 감면 규정 신설을 위한 세제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더욱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세무상담회’를 통해 구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들어가 평소 궁금하고 답답했던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우리 강남구는 행정안전부 납세자 권리증진 우수사례 부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디지털 서비스 우수사례 부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2025 강남 드림 텍스’는 급변하는 조세 환경 속에서 강남구의 세정 역량을 점검하고,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강남구가 대한민국 대표도시이자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합니다.

구민에게 신뢰를 얻고 존중받는 세무행정 전문가로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멋진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강남구청장

조성명

인사말

2025 강남구 지방세발전 연구동아리 ‘강남 드림 텍스’ 연구활동 모음집을 발간하며

2025년 한 해, 강남구 세무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방세제 발전과 납세 편의를 치열하게 고민해 온 결실인 『2025 강남구 지방세발전 연구동아리 연구활동 모음집』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모음집은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과 쉼 없는 고민들을 AI 작가에게 들려주었고, AI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1년을 한 편의 ‘성장 드라마’처럼 기록했습니다.

AI가 기록한 우리의 2025년은 ‘혁신’과 ‘공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규제 개혁’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BS) 가산율 폐지 및 감면 신설을 이끌어내며 서울시 세제개선 “최우수상” 및 행안부 지방세 발전 포럼 행정안전부 장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디지털 혁신’입니다. 자체 개발한 AI 지방세 도우미(GPTS)와 전국 최초의 ‘AI+지도’ 등록면허세 처리 시스템은 구민의 편의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과기부 장관상 수상으로 강남구의 스마트 행정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동행’입니다. 찾아가는 세무상담회로 구민과 기업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알림톡 서비스로 납세자의 권익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행정안전부 2관왕 달성이라는 자부심과, 워크숍 등을 통해 다져진 직원 간의 끈끈한 화합이 있었습니다.

AI 작가의 펜 끝에서 완성된 이 책에는 우리 직원들의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스토리북’이 향후 업무의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2026년에도 구민에게 신뢰 받는 최고의 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함께해 준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강남구 지방세발전 연구동아리 ‘강남 드림 텍스’ 회장

서혁보



비전 및 연혁

2025 강남드림택스 비전

GANGNAM DREAM TAX

Vision

신규세원 발굴 세입증대에 기여

세무부서 직원의 전문성 제고

불합리한 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Mission

신규세원 및
누락세원 발굴

현안사항 관련
직원 간 정보 공유로
지방세 발전 도모

구민에게 보다
적극적인 세무관련
서비스 제공

의미

강남 구민들의 꿈을 이뤄주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미

전략과제

구 재정확충

세무직원의
역량강화

납세편의
정책 개발

구성

우리구
세무부서
직원

지방세
연구원
교수

세무회계
전문가

추진배경

- 복지행정지원 등 구 재정확충의 필요성 대두
- 세원발굴 및 납세자 중심 세정 실현
-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적극세무행정 구현

2025 강남드림택스 연혁

GANGNAM DREAM TAX

2025

행정안전부 2관왕 수상

- 지방세 발전포럼
〈우수상〉
- 납세자 권리증진 우수사례
〈최우수상〉



모음집 발간

- “강남 드림택스 연구활동 모음집” 발간
- AI가 전하는 세무행정이야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 2025년 디지털서비스 이용확산 우수사례



2019

- 12. 품격강남 GTX680 연구활동 모음집 발간

2018

- 12. GTX 680 연구활동 모음집 발간



2017

- 04. 서울시 세제개선 우수연구과제 선정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지방세 재정 확충방안”

- 06. 전국 지방세연구동아리 우수 연구과제 선정
“부동산취득세 신고납부 방식 개선방안”

2016

- 06. 전국 지방세연구동아리 우수 연구과제 선정
“주민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사업소 범위의 구체화 방안”

▶지방세네트워크포럼 지방세제분과
연구과제 선정

- 01. 4분기 강남구 주요사업 평가 “매우우수” 달성

- 12. GTX 680 연구활동 모음집 발간

- 11. 지방세법령시스템(OLTA) 우수회원 선정





목 차

Part 1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지방세법 제도개선 1

- 01 인텔리전트빌딩 재산세 가산율 폐지 및 감면신설 3
-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제도 및 AI 활성화 정책을 위한 규제개혁 -

Part 2 적극적인 세원관리로 구 재정 확충 37

- 01 257억 원의 숨은 조각을 맞추다 39
- 법인조사팀 신설과 공정 과세를 향한 2년의 기록 -
- 02 소통이 만든 기적, 10년 만의 1위 45
-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며 이뤄낸 징수율 1위의 기록 -
- 03 대의 변화를 읽다, 공정의 기준을 넓히다 51
- 가상자산부터 외국인 납세자까지, 징수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

Part 3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59

- 01 당신의 성실함이 강남의 자부심입니다 61
- 2025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과 특별한 의료 혜택 -
- 02 광장으로 나온 전문가들 67
- 2025년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회를 이끈 재능기부 세무사들의 이야기 -

Part 4 AI를 활용한 스마트 혁신 세무행정 73

- 01 김 팀장의 선택, 경험을 데이터로 치환하다 75
- 지방세 표준교재를 학습한 강남구 자체 AI, GPTS 개발기 -
- 02 코딩으로 찾아낸 권리 81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환급금 발굴 프로젝트 -

Part 5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회 87

- 01 광장에서 만난 세무사, 시장에서 만난 은행원 89
- 2025년, 책상을 떠나 현장으로 나간 기록 -
- 02 새집의 설렘, 세금 걱정은 덜어드립니다 97
- 청담 르엘 입주 현장에서 펼친 내 집, 내 세금 설명회 -

Part 6 구민과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무설명회 103

- 01 세금, 두려움이 아닌 전략이 되다 105**
- 450명 구민과 함께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 현장 -
- 02 파트너, 그 이상의 세무행정 111**
- 전국 최초, 기업의 성장을 돋는 세무설명회 개최 -

Part 7 사전 안내를 통한 적극행정 서비스 117

- 01 3년 뒤의 폭탄을 막아라, 당신의 비서 알림톡 119**
- 잊기 쉬운 세금 의무, 스마트폰으로 미리 챙겨드립니다 -
- 02 데이터의 퍼즐을 맞추다, 납세자의 실수를 돋다 125**
- 빅데이터 교차 검증을 통한 누락 세원 신고 지원기 -
- 03 아기 분유 값, 구청이 찾아드렸습니다 131**
- 데이터 장벽을 넘어 출산 가정에 세금을 돌려주다 -

Part 8 강남 세정의 대외 수상 및 글로벌 위상 137

- 01 이론과 현장을 모두 석권하다 139**
- 2025년 행정안전부 장관상 2관왕 달성의 기록 -
- 02 세계가 주목한 K-세정의 표준, 강남 145**
- 세계은행(World Bank) 초청 글로벌 지식공유 세미나 현장 -
- 03 엑셀 지옥에서 디지털 트원으로 151**
- 전국 최초 API 기반 스마트 등록면허세 시스템 구축기 -

Part 9 세무부서 직원화합 소통 강화 159

- 01 잠시 멈춤, 그리고 더 큰 도약 161**
- 2025년 세무직 공무원 화합 워크숍, 양구에서의 1박 2일 -

부 록 Special Episode: 우리들의 품격 167

- 01 세무과 직원 칭찬합니다 169**
- 02 독서감상문 수상작 175**



PART 1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지방세법 제도개선

- 01 인텔리전트빌딩 재산세 가산을 폐지 및 감면신설
-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제도 및 AI 활성화 정책을 위한 규제개혁 -
재산세과 법인조사팀

PART 1.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지방세법 제도개선

CHAPTER

01

인텔리전트빌딩 재산세 가산율 폐지 및 감면신설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제도 및
AI 활성화 정책을 위한 규제개혁

재산세과 법인조사팀

임현희 법인조사팀장, 이경일 주무관, 김성미 주무관, 이우성 주무관,
송두영 주무관, 김정모 주무관, 정혜린 주무관

01

인텔리전트빌딩 재산세 가산율 폐지 및 감면 신설

- 납세자에게 불합리하고 AI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

I. 개요

1. 도입배경 및 목적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우리 강남구에서는 전체 연면적 10,000m² 이상인 33개의 건물 중 재산세 대장상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ntelligent Building System) 적용이 누락된 21개 건물을 현장 조사하여 총 23억여원의 재산세를 추징하였다. ‘DDC판넬을 증개매체로 하여 센서를 통해 온도와 급수시설 등을 조절하는 시설’을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현장 조사하는 동안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 정도도 안되는 건물이 어딨어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가 실제로 법령·판례 및 인터넷 자료조사 등으로 공부한 내용과 현장에서 생각하는 인텔리전트빌딩 개념이 사뭇 달랐던 것이다. 그리고 납세자들이 생각하는 인텔리전트빌딩 시스템이란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자동제어 시스템’이었고, ‘단순히 센서를 통해 컴퓨터 제어를 한다’는 개념과는 큰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쯤에서 우리들은 지방세법상 인텔리전트빌딩 시스템 관련 규정이 매우 모호하며, AI로 지속적인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상당히 유리되어 있음을 느꼈다. 가장 최근의 관련 법원판례는 무려 20여년 전인 2001년의 판례였으며,¹⁾ 이후의 조세심판원의 판례도 그 판례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데다가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을 지방세법에 최초 도입했던 1995년이후로는 가산율 적용 감소 등의 변경 외에는 법령상 구체적인 변화조차 거의 없었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은 건축물의 개념을 단순한 공간에서 벗어나,

1)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은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1두21, 2001. 5. 8. 판례 등 참고)이라고 판시하였다.

사용자 편의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시스템을 포함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Intelligent Building System, 이하 “IBS”라 한다)을 넘어 인공지능(AI)를 탑재한 스마트 빌딩(Smart Building)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IBS는 설비 통합관리, 자동제어, 보안, 통신, 에너지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며 현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조세제도는 여전히 이러한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IBS에 대한 과세 기준은 구체성과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 특히 IBS 서비스가 현재 전 세계적인 화두인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친환경 건축물의 핵심으로써 구성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녹색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IBS에 대해서는 기존 과세표준의 가산율 방식으로 인해 오히려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IBS의 개념과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과세표준 가산율 적용 폐지와 지방세 감면 규정 신설을 통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정한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에너지 절감 및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는 선순환의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추진내용 및 방법

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에 따라 진행된다.

가. IBS의 개념 정의 및 기술적 특성 고찰

- IBS 서비스와 빌딩 자동 제어방식 분석
- IBS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법상 문제점 제시

나. 현행 IBS 관련 법령·제도 현황 분석

- 지방세법 시행령, 건축법, 국세청 기준시가 등의 규정 검토
- 현행 재산세 과세제도의 문제점 제시

다. 지방세법 개선 방안 제안

- 가산율 적용 폐지 추진
-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추진

라. IBS 조세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 탄소 에너지 절감 효과
- 기업 및 개인의 사회·경제적 부담 감소
- AI·건설·부동산 산업 활성화
- 조세형평성과 합리성 확보

II. 지방세법상 IBS의 현황 및 문제점

1. IBS의 개념과 기술적 특성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IBS)은 1984년 1월 UTBS(United Technologies Building System)사가 미국 코네티컷 주 하트포트에 건설하여 완성한 시티 플레이스(City Place)에서 그 특징을 선전하는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는데, 말 그대로 ‘명석한 두뇌를 가진 빌딩’이라 말할 수 있던 것이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10월 한국통신전자운용연구단 건물을 국내 최초로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준공하면서 점차 상용화 되어왔다.²⁾

현재 IBS는 전기, 기계, 정보통신, 에너지 관리 등 다양한 빌딩 설비를 통합하여 자동화하고, 건물内外부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고도화된 시스템이다. IBS의 기술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³⁾⁴⁾

- **빌딩 자동화 시스템(BAS: Building Automation System):** 냉난방, 조명, 환기, 방재 등의 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에너지 절감을 도모한다.
- **사무 자동화 시스템(OAS: Office Automation System):** 이전 수작업으로 처리하

2) 윤재용,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의 컨텐츠 정보안내시스템 설계 및 구현」,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2010, pp. 3-5

3) 윤재용,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의 컨텐츠 정보안내시스템 설계 및 구현」,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2010, pp. 6-8

4) 안종훈, 「인텔리전트 빌딩군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1, pp. 25-40 참고

던 업무를 정보통신 네트워크와 통합 운용함으로써 정보처리 및 사무 처리를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한다.

- **정보통신(TC: Tele-Communication)**: 사무환경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다기능 전화 이용이나 Fax, 화상 통신이 가능한 전송 교환 서비스, 전자메일 서비스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은 기존의 단순한 기계설비와 달리 고도의 디지털 연계성과 효율성을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사무실 건물의 효율화로 건물의 유지비용을 절감시키고, 사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이러한 IBS의 제어 방식은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IBS의 제어 방식⁵⁾

설비제어	방법제어
	건물의 냉·난방 및 공조를 책임지며 방재시스템과 연동되어 작동된다.
조명제어	전력제어
	조도, 패턴, 스케줄(시간)을 제어하며 일반적으로 OA와 연동되어 원격제어된다.
방재제어	주차제어
	피난 유도등이나 방화차단기 등을 제어하며 보통 급·배기 및 공조와 연동되어 작동된다.

위와 같은 제어방식은 현장조사 당시 DDC 판넬을 중개매체로 두어 현장의 센서를 통해 제어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구는 DDC 판넬을 활용한다 하면 사실상 IBS를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전문지식을 갖춘 것이 아니기에 현장과의 마찰은 필연적이었고 그 한계는 뚜렷했다.

지방세법 규정상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

5) BAS KOREA 홈페이지, <http://www.baskorea.com/kr/ir/lecture.php>
자동제어 강의 참고.

정 업무요령>에서 가산율 적용 대상이 되는 IBS 빌딩관리 자동제어 요소를 상정하고 있는데 “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방화(防火)를 포함함], 전기, 조명 등”이라고 밖에 서술되어 있지 않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지자체 세무 공무원이 해당 요소를 판단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한다.

2. IBS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세법 이하 관계 규정 및 기타 법령상 IBS에 대한 현행규정이 어떠한지 다음과 같이 살펴보자 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나.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제19조(오피스텔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에 따른 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가감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가감산율 : 별표 8

□ 가산대상 및 가산율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가산율	가산율적용 제외부분
I	(1)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input checked="" type="radio"/>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 빌딩관리요소 4가지 - 빌딩관리요소 5가지이상	0.05 0.10	<input checked="" type="radio"/>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복합건물 내 주택, 생산설비를 설치한 공장 용 건물, 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 이하 같다)

(이하 생략)

다.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

□ 용어의 정의⁶⁾

-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란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방화(防火)를 포함함], 전기, 조명 등)의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기능별 별도관제시스템 포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자동관리·제어하는 시설을 말함
 -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단순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함

라. 건축법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이하 생략)

마.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11조(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적용대상	번호	지수	적용범위
(중략)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건축물 인증 3등급·4등급 -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2등급 	14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단 1회라도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한다.
		15	120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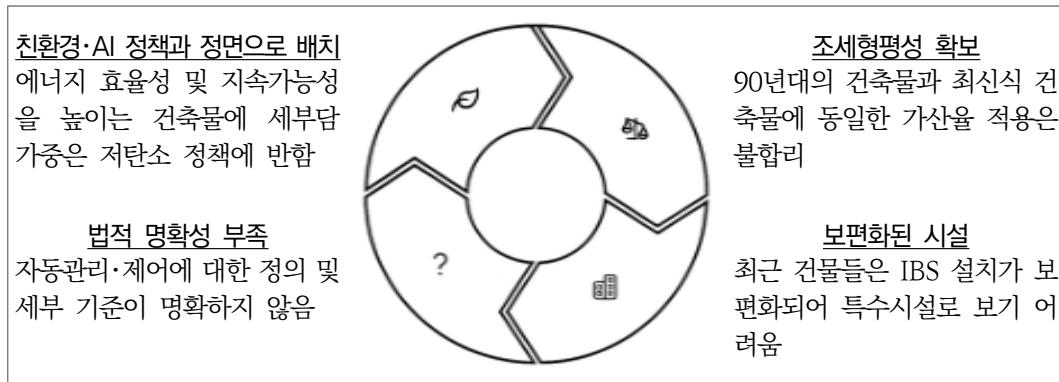
6)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 p.52

위와 같이 지방세법 및 행안부장관 고시기준 그리고 시가표준액 산정 업무요령을 살펴 볼 때 IBS에 대한 명확한 지방세법상 정의 및 구체적 적용기준은 사실상 부재하다. 따라서 건축법상 정식으로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아니라면 각 지자체 세무공무원들은 이전 판례 및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등을 참고하여 전문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판단해야 하므로 납세자의 취득세 성실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에는 IBS 설비가 과세대상으로 되어있지만, 재산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과세할 근거가 현행법령상 존재하지 않는다. 건축법상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은 조세법령과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아 과세근거로 활용되기 어렵고,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은 과세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므로 납세자에게 직접 적용되기에에는 논란이 있다. 이미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가 불합리한 과세표준 조정을 통해 특수설비 가산율 적용대상이었던 자동승강기 및 7,560kcal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대한 가산율을 폐지한 바 있다.

IBS 설비는 이미 건축물에 대한 신·증축 및 대수선 과정에 포함되어 취득세가 신고될 뿐만 아니라 재산세 시설물에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산정되는데 가산율까지 적용된다면 재산세액이 5%, 10% 가산율 만큼 높아져 사실상 재산세가 중복 과세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재산세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 중 자동제어가 가능한 IBS설비에 해당할 수 있는 시설물에는 자동제어 및 감시가 가능한 엘리베이터, 20kw이상의 발전시설, 온수 및 열 공급시설,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 구내 변전·배전시설이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건물들은 대부분 IBS를 기본적으로 갖추기 때문에 현 세태에 고급 특수시설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에서는 IBS 건축물 인증 등급을 정식으로 받은 경우에 한해 조정률을 적용하는바, 지방세법에 비해서는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 하다.

3. 지방세법상 IBS 과세제도의 문제점



가. 에너지 절감·친환경 정책·AI 활성화 정책과의 불일치

IBS 서비스는 에너지 절감, 업무 생산성 제고, 이용자 안전성 확보 등 다양한 공공성과 기능성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조세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예컨대 같은 용도의 오피스 빌딩이라도 IBS 서비스를 갖춘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가 높아져 IBS 도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미 우리 건축법에서도 지능형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제도 실시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ESG와 관련된 탄소중립 및 제로에너지와 관련된 친환경 기술 도입을 적극 장려하는 정부주도의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 친환경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으로 취득세·재산세를 5~15% 감면 해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AI 활성화 정책으로 융합·활용을 촉진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제도·예산·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AI 활성화 정책, 건축환경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IBS 기술의 확산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세장벽이 기술 보급을 억제하고 있는 셈이다.

나. 세부기준의 불명확성

현행법령은 상술한 대로 빌딩관리요소에 대한 항목만 열거됐을 뿐 그 내용과 구체적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다. 서비스가 갖추어졌다 해도 자동으로 제어가 되지 않고 사람이 수동으로 작동시킨다고 주장한다면 각 지자체 세무 담당이 빌딩관리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그것을 반대로 주장할 만한 설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다. 과세형평성 저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과세형평성이 매우 저해된다는 것이다. IBS 가산율이 최초로 적용된 1996년부터 이미 그 가산율 적용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어왔고 수많은 소송사례를 낳았다.⁷⁾ 대법원에서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일반적인 개념, 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각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은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그 기준에 대해 부분적이 나마 규정하는 판례를 남겼다.⁸⁾ 이후 IBS에 대한 지방세 가산율 규정은 아래의 표와 같은 변동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개정연도	가산율(%)	주요 내용
1996년	50	IBS 가산율 최초 제정
1999년	50	IBS 시설 → 빌딩자동화시설로 변경 빌딩자동화시설의 정의: 공조, 전기, 조명, 방범, 방재 등 빌딩관리요소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
2001년	35	가산율 인하(50→35) 개별관리 및 단순중앙관리시스템 제외 문구 삽입
2006년	3가지: 15 4가지: 20 5가지 이상: 25	가산율 인하(35→15/20/25)
2009년		가산율 인하(15/20/25→5/10)
2015년		기능별별도관제시스템 포함 문구 삽입
2017년	4가지: 5 5가지 이상: 10	빌딩자동화시설 → IBS 시설로 변경 IBS 시설의 정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방재, 전기, 조명 등 빌딩관리요소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
2018년		“방재에 방화를 포함한다” 문구 삽입
2024년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및 ~”문구 삽입
2025년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및 ~”문구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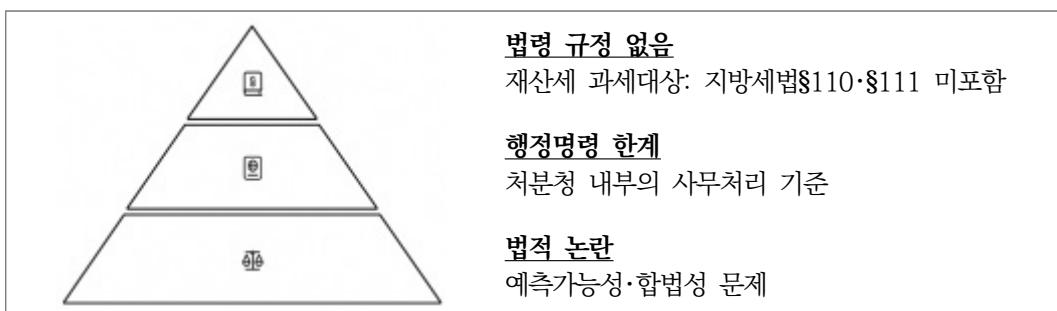
7) 전병역, ‘인텔리전트빌딩 세금가산율’ 적용 말썽, 경향신문, 2001. 11. 7.

<https://www.khan.co.kr/article/200111070035171>

8)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등 다수

위와 같이 가산율 상세 규정은 미미하게 개정되어 사실상 2009년 이후 16년 동안 가산율 제도가 멈춰있는 셈이다. 그동안 재산 가치가 그만큼 증가했으니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입장과 건물 운영 및 친환경 효율에 도움이 되어 가산율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납세자 측의 입장이 서로 상충해왔고, 앞서 말한대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간극이 상당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정보에 의존하여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과세 누락된 IBS 건축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성실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IBS가 최초로 도입된 90년대에 지어진 노후화된 자동제어시스템 건물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빌딩을 자동제어하는 현대적 스마트건물이 서로 같은 가산율을 적용받는다는 것 자체가 과세형평성을 매우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건물들은 IBS가 보편화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특수시설로 보기 어렵고, 90년대 규정의 기준으로는 모두가 가산율을 적용받아야하는 IBS 건축물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군다나 전 세계가 '친환경'·'AI 인공지능'이라는 슬로건하에 움직이고 있는 현 시국에 해당 규정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바 규제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III. 법령 개정방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지방세 IBS 과세제도는 끝을 모르고 기술이 발전하는 현 시대의 흐름에 맞지도 않고 심지어 세부 규정마저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 과세제도를 전방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2가지 방향으로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과세표준 가산율 적용 폐지

IBS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0조 및 111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순한 처분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 만으로 IBS 빌딩관리요소에 대해서 세무담당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이를 직접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와 같은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합법성이 저해되는 법적 논란이 있으므로 가산율 적용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자 한다.

【 서울특별시 재산세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가산율 과세 현황 】

구분	빌딩 수	IBS 가산율 적용			비율
		합계	5% (4가지)	10% (5가지 이상)	
서울시(건)	555,847	645	296	359	0.1%
강남구(건)	23,711	84	33	51	0.3%

【 서울특별시 최근 5년간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신고 등록 현황 】

구분	합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서울시(건)	181	41	51	25	33	31
강남구(건)	19	4	5	5	2	3

한편, 2025년 현재 서울시 내의 전체 건물 중 IBS 가산율이 적용된 건물은 위의 표와 같이 전체의 0.1%에 불과하고 강남구도 역시 0.3%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으로 신고된 건물은 181개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수많은 마천루들과 사실상 그 건물에 고급 시설들이 탑재되어 있음을 고려해 본다면 그 부과현황은 실제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재산세 세액 중 IBS 가산율 5~10%가 적용됨에 따른 세액 비중은 단순 산술적으로 보아도 0.005 ~ 0.01%에 불과하여⁹⁾ 가산율 적용이 폐지된다 하여도 그 세수 감소는 매우 미미할 것이다. 해당 건물 외에도 소위 인공지능형 ‘고급 설비’를 다수 갖췄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극소수의 건물들만 가산율을 적용받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도 맞지 않다. IBS에 관련된 설비들은 이미 건축물에 대한 신·증축 및 대수선 과정에 포

9) [서울시 0.1%]*[가산율 5~10%]=0.005 ~ 0.01%로 계산된다.

함되어 취득세가 신고될 뿐만 아니라 재산세 시설물에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산정되는데 가산율까지 적용된다면 세액이 5~10% 높아지기에 성실 납세자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한 과세일 뿐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정책이 대두되는 속에서 녹색인증 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지는데, 친환경에 일조하는 IBS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적용시킨다는 것 자체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과세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녹색인증 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범인세 등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IBS를 상기한 가산율 자체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자체별 세무공무원 판단의 자의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규제개혁이 실시되어야 하며, 최첨단 AI 인공지능 기술도입 및 친환경 정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계 체계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2.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



가. 감면의 필요성

IBS는 에너지 관리 효율성, 탄소배출 저감, 안전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녹색건축물과 유사한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현재 녹색건축물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고 있으나, IBS 건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능형 설비의 초기 설치 비용은 일반 설비보다 높은 반면, 장기적인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는 상당하다. 이미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녹색인증 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차원에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친환경 신기술을 적극 장려해야 할 충분한 정책적 동기가 된다. 또한, 정부의 AI 활성화 정책 방향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나. 해외 감면 사례

유엔환경계획(UNEP)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40%가 건설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8%는 전적으로 빌딩을 가동하고 유지관리 하는 데 따른 것으로 발표했다.¹⁰⁾ 그래서 이미 해외에서는 IBS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처럼 재산세 과세표준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에 녹색인증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물에 대한 감면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에도 대동소이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¹⁾

순번	국가	IBS 과세 방식	친환경 인센티브
1	대한민국	재산세 과세표준 가산	녹색인증건축물 감면
2	싱가포르	재산세 가산율 없음	녹색건축물 감면 정부보조금 지급
3	독일	재산세 가산율 없음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KFW 녹색건축물 보조금 지급
4	일본	재산세 가산율 없음	조세특별조치법상 세액공제 취등록세 감면, 특별감가상각 적용

(1) 싱가포르¹²⁾

싱가포르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강력한 조세 감면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BCA(Buidl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건축건설청)의 ‘Green Mark’ 인증 건물에 대해 재산세 감면 및 정부보조금을 제공한다. IBS와 유사한 시스템(스마트제어, 자동화, 에너지관리)을 포함한 빌딩은 인증 등급에 따라 최대 100%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기술 도입을 조세정책으로 장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 고재원, “AI가 배합한 ‘친환경 콘크리트’, 탄소 배출량 40% 줄여”, 동아일보, 2022. 5. 9.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08/113287284/1>

11) Per Karlberg, “Exploring incentives for innovative energy-efficient properties”, ESG Real Estate, 2025 참고
<https://proptechos.com/esg/government-incentives-energy-efficient-properties/>
 12) <https://corenet.gov.sg/media/2330872/gmis-eb-20-circular-tcs-30-june-2022.pdf> 참고

(2) 독일¹³⁾

독일은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EStG) 제35c조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특정 조치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독일 정부가 인정한 에너지 전문가(에너지 컨설턴트)로부터 지원사업 대상 조치임을 사전 확인받은 납세자에게 총 공사 비용의 20%를 3년에 걸쳐 주택당 최대 40,000유로를 한도로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3) 일본¹⁴⁾

일본에서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IBS)과 관련된 세액공제 규정으로는 「租税特別措置法(조세특별조치법)」 제42조의4에 에너지 절약형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특별 감가상각을 규정하고 있다. IBS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본금 3,000만엔 이하의 중소기업·개인은 10% 세액공제 적용 가능, 그 외는 7% 등으로 차등 적용 되며 도입 설비에 대해서도 30%~40% 상당액을 도입 첫 해에 특별상각(즉시상각) 할 수 있는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에너지 효율 및 AI 스마트 건축 요소의 도입을 ‘과세 감면’이라는 정책 도구로 유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IBS 설비를 ‘고급 설비’로 분류하여 오히려 가산 과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이 정반대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해외는 국가 인증제도와 조세제도의 연계가 명확하며, 인증등급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화하는 합리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가 IBS 기술을 국가 건축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 반드시 벤치마킹할 요소이다.

다. 감면 방안 제안

「지방세특별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 등급 이상의 IBS 건축물(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

13) 세계법제정보센터, 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제35c조 참고
<https://clean-energy-islands.ec.europa.eu/countries/germany/legal/energy-efficiency-policies-ee/energy-efficiency-measure-tax-subsidy>

14) 세계법제정보센터, 일본 租税特別措置法(조세특별조치법) 第四十二条の四 참고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안)〉

-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라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한다.
- ②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제1항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그 요건을 70일 이내에 갖추지 못한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인증이 취소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¹⁵⁾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능형 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안) 〉

- ① 법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형건축물 3등급 건축물: 100분의 3
 2. 지능형건축물 2등급 건축물: 100분의 5
 3. 지능형건축물 1등급 건축물: 100분의 10
- ② 법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형건축물 3등급 건축물: 100분의 3
 2. 지능형건축물 2등급 건축물: 100분의 5
 3. 지능형건축물 1등급 건축물: 100분의 10

15) 이러한 한시규정을 신설하되,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법령개정 또는 부칙을 통해 감면시한을 연장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술한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고시 등과 같은 적극적인 법령 간 연계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분석을 통해 세부적인 감면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IV. 기대효과

IBS 가산율 적용이 폐지되고 더 나아가 세액감면까지 적용된다면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녹색성장과 AI 산업기술 발전, 조세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스마트건축 활성화가 곧 세수기반 확충으로 이어져 사회·경제적인 선순환 효과로 인해 크게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효과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은 <2050 탄소중립 로드맵 → 디지털 전환 가속 → 녹색건축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 특히 정부는 ‘스마트 시티(Smart City)’를 모토로 하여 도시에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스마트’한 IBS를 도입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것으로 직결될 것이다.¹⁶⁾ IBS 인증제도도 그 일환으로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첨단 시스템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조명, 냉난방, 환기, 방재 등 각종 서비스의 자동제어를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제어 및 피드백을 통해 최적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IBS를 도입한 건축물은 에너지 절감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 달성을 부합한다.

이러한 효과는 단지 개별 건축물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의 환경 정책 및 AI 활성화 정책과 직결되며, IBS의 확산은 그 자체로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16)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발표자료(2019. 6. 21. 국토교통부) 참고

2.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IBS는 초기 설치 비용이 높다는 한계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비용과 유지관리비에서 상당한 절감 효과를 나타낸다. IBS 도입에 따라 전기비용은 호수별 48만원이 절감될 것이고, 건물 내 CCTV를 이용해 자살 의심 탐지를 하면서 보험 손실 방지(8863만원/인) 및 연간 GDP 상승효과(최대 4,198억원/년)를 볼 수 있으며, 스마트파킹 보급과 불법주차 감소에 의한 도로혼잡비용 감소(308만원/대·년) 및 신규 주차업 매출(20억원/개소·년)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층간소음 원인 분석과 사전 완화 시스템도입에 따른 층간소음배상액 감소(569억원/년) 및 이사 중개수수료를 절약(190억원/년)할 수 있고 건물 내 공기오염 원인파악 및 방지시스템 도입에 따른 폐질환 치료비용 감소(4,337억원/년)되며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¹⁷⁾

그 외에도 실시간 진단 및 고장예측 기능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유지보수 및 긴급복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지방세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면, 투자자의 초기 도입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 이는 민간 건축주와 기업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며, 스마트시티의 핵심 구성요소로써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이라는 공공적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3. AI·건설·부동산 산업의 활성화

IBS 관련 기술의 확산은 AI·건축·부동산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 편의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장 흐름에 따라, IBS 적용 건물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프리미엄 시장 형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IBS에 사용되는 센서, 제어장비, 소프트웨어 산업 등 국내 AI 기술 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가 가능하다. 도시 차원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 보다 수월해지며, 관련 산업 클러스터 형성의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4.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 확보

현행 제도는 IBS와 같은 친환경 설비에 대해 사실상 ‘고급 설비’로 간주하여 가산 적용

17) 김성완, 「스마트빌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대한건축학회, 2019년 11월, p. 41

함으로써 전세계적 기조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하지만 가산율 적용 폐지 및 감면 제도가 도입된다면 상술했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들지언정 그 마이너스 효과는 미미할 것이고, 오히려 중장기적 비용절감과 환경보호에 따른 공공편익 극대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과세정책과 에너지정책, 환경정책, AI 활성화정책 간 일관성을 확보하여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감면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IBS 기술 장려 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V. 결론

오늘날 건축 환경은 단순한 공간 제공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성, 안전성, 편의성 등을 포괄하는 스마트 빌딩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IBS)은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고, 사용자 중심의 쾌적한 생활·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이자 이제는 기본적인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세제도는 IBS의 공익성과 기술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과세표준 가산율의 적용을 통해 IBS 도입을 저해하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에너지 절감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지향하는 국가 정책과 괴리된 조세운용이며, 성실 신고 납세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조세제도이므로 조속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IBS 설비의 재산세 과세표준 가산율 폐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IBS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 국토교통부의 인증제도와 조세제도의 연계체계 구축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매우 다양하다. 단기적으로는 IBS 설비 확산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건물 운영비용 절감,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건축환경 조성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나아가 세계 형평성 확보 및 건축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IBS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은 단순한 세금 감면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환경·경제가 조화되는 스마트 사회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관련 입법과 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실제 제도 실행을 위한 추가적인 실증연구 및 국제비교분석이 후속 연구로 이어지기를 제안한다.

[참고자료]

1. 참고문헌

김명호, 성순경, 최기철 공저, 〈빌딩 자동 제어〉, 건기원, 2017

2. 참고논문

윤재용,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의 컨텐츠 정보안내시스템 설계 및 구현」,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2010

안종훈, 「인텔리전트 빌딩군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1

김지은, 「인텔리전트 빌딩 가산율 적용기준 비교」,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논단, 2025년 통권3호

마정화, 「스마트건물에 관한 지방세의 과세 관계」,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32권 제4호, 2022년 12월

김성완, 「스마트빌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대한건축학회, 2019년 11월

3. 참고 신문기사

백강철, [자동제어설비] 빌딩 자동제어를 위한 직접 디지털 제어기 DDC, 기계설비신문, 2024. 3. 11.자
<https://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73>

전병역, ‘인텔리전트빌딩 세금가산율’ 적용 말썽, 경향신문, 2001. 11. 7.
<https://www.khan.co.kr/article/200111070035171>

고재원, “AI가 배합한 ‘친환경 콘크리트’, 탄소 배출량 40% 줄여”, 동아일보, 2022. 5. 9.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08/113287284/1>

Per Karlberg, “Exploring incentives for innovative energy-efficient properties”, ESG Real Estate, 2025

4. 참고 URL

BAS코리아 빌딩 자동제어 강의 참고

<http://www.baskorea.com/kr/ir/lecture.php>

<https://proptechos.com/esg/government-incentives-energy-efficient-properties/>
<https://corenet.gov.sg/media/2330872/gmis-eb-20-circular-tcs-30-june-2022.pdf>
<https://clean-energy-islands.ec.europa.eu/countries/germany/legal/energy-efficiency-policies-ee/energy-efficiency-measure-tax-subsidy>

세계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참고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백강철, [자동제어설비] 빌딩 자동제어를 위한 직접 디지털 제어기 DDC, 기계설비신문, 2024. 3. 11.자

<https://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73>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세제 및 AI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BS) 재산세 가산율 폐지·감면 신설

작성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표자: 법인조사팀장 임현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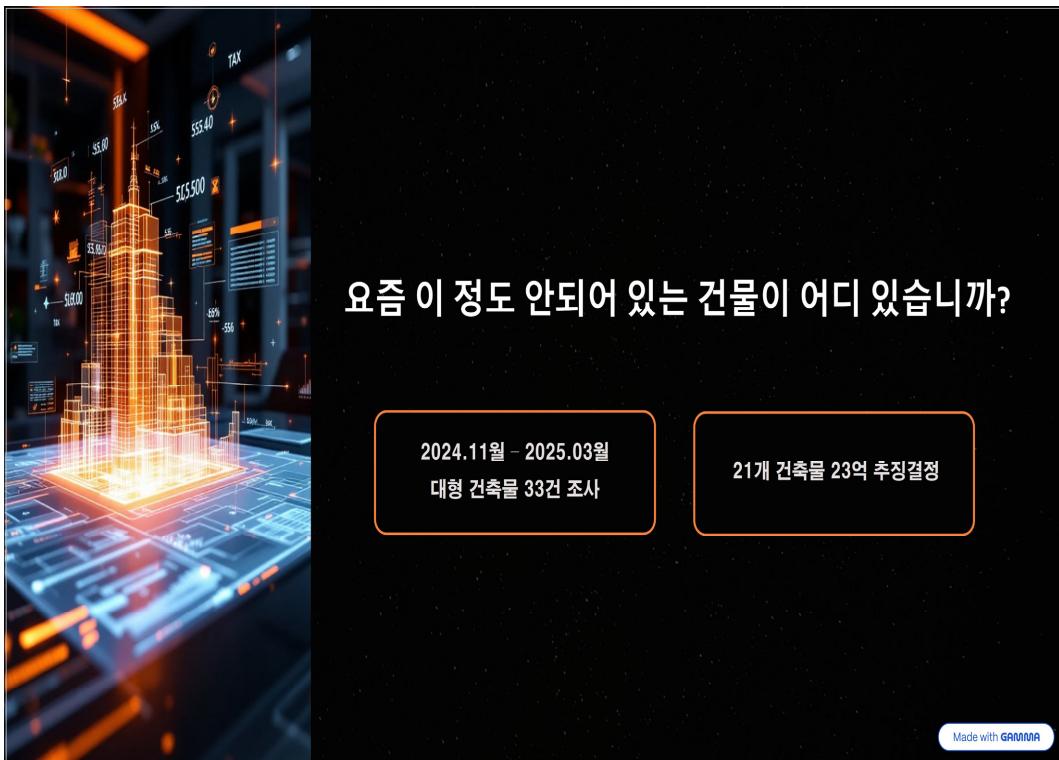
Made with: GAMMA



발표 순서

1. 추진 배경 
배경, IBS 정의, 현황
2. 문제점 분석 
법적 근거 부재, 정책 일관성 결여
3. 개선 방향 
가산율 폐지, 동급별 감면 신설
4. 기대 효과 
세수·환경·산업 파급효과

Made with: GAMMA



현장조사를 통한 개선 필요성 확인

친환경 정책

에너지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건
축물에 세부담 가중은 저탄소 정책에 반함

법적 명확성 부족

자동관리·제어에 대한 정의 및 세부 기준
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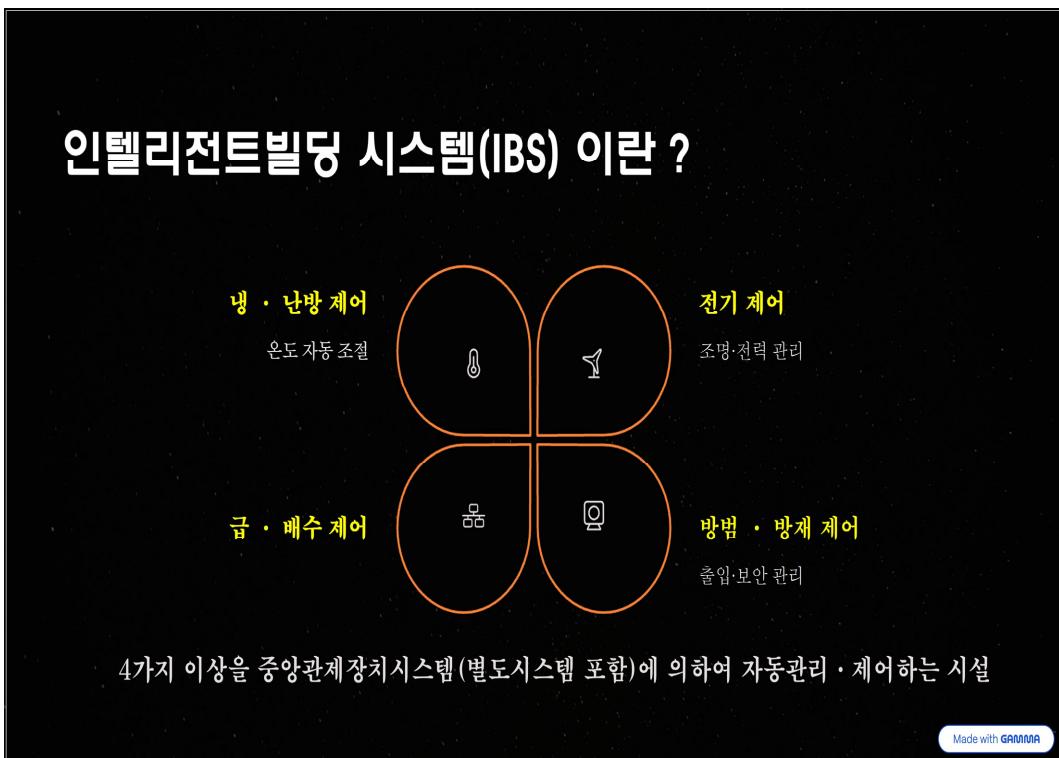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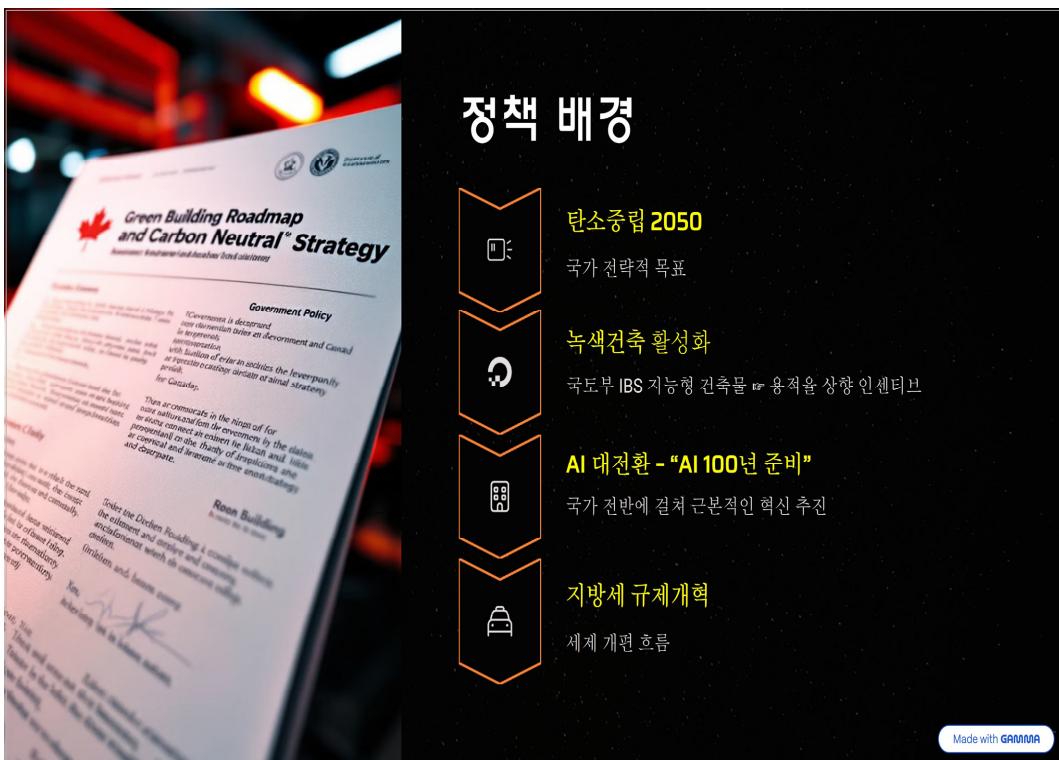


조세형평성 확보

녹색건축물에는 감면 혜택을 주는 반면
인텔리전트빌딩에는 가산율 적용은 불
합리

보편화된 시설

최근 신축 건물들은 인텔리전트빌딩 시스템 설치가 보편화되어 특수시설로 보기 어려움





재산세 인텔리전트빌딩 시스템 가산율 적용 현황					
구 분	빌딩건수	인텔리전티빌딩 시스템 적용			비율
		합계	5% (4가지)	10% (5가지 이상)	
서울시(25개구)	555,847건	645건	296건	359건	0.1%
강남구	23,711건	84건	33건	51건	0.3%

※ 2025년 현시점 재산세 과세대장 기준

Made with GAMMA

최근 5년간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취득신고 등록 현황

구 분	합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서울시(건)	181건	41	51	25	33	31
강남구(건)	19건	4	5	5	2	3

※ 2025년 현시점 재산세 과세대장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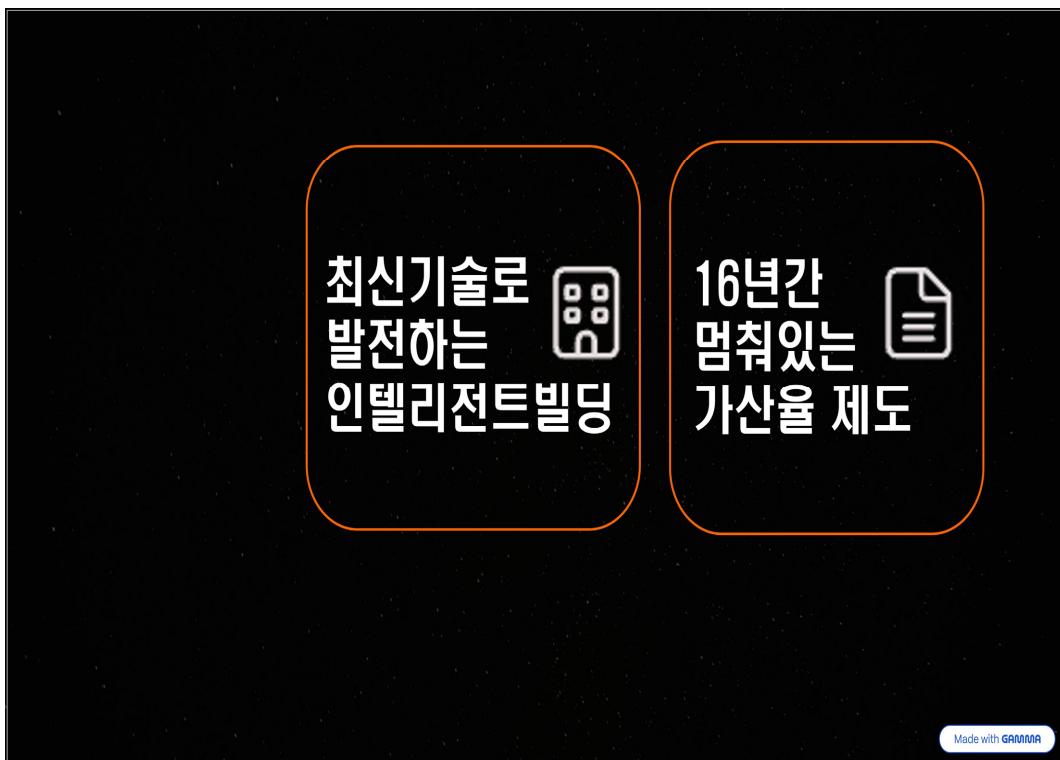
납세자는 IBS 건물을 AI (인공지능) 건물로 인지 ➡ 취득세 신고시 신고누락 사례 많음

Made with GAMMA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 가산율 변동 연혁

연도	1995년도	2001년도	2006년도	2009년도~ 현재
가산율	50% (최초제정)	35%	3가지 - 15% 4가지 - 20% 5가지이상 - 25%	4가지 - 5% 5가지이상 - 10%

Made with GAMMA



문제점 ① – 법적 근거 부재



Made with GAMMA

문제점 ② – 정책 일관성 결여

녹색건축 · 제로에너지

- 세금 감면 혜택
- 친환경 인센티브 제공



인텔리전트빌딩 (IBS)

- 세금 중과 부담
- 에너지 절감 효과 무력화

Made with: GAMMA

국내 · 해외 제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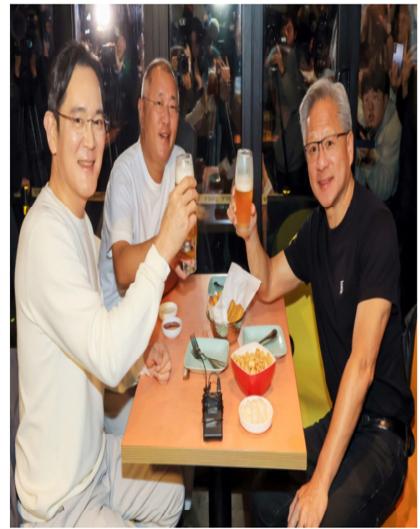


The accurate location information and specificities of cities are supplied by the respectiv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of the world.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South Korea: Land Value
Germany: Land Value
Germany: Property Tax
USA: Property Tax

국가	과세 방식	친환경 인센티브
한국	재산세 기반	녹색건축 감면
독일	재산세 기반없음	KW 녹색건축 보조금
미국(캘리포니아)	재산세 기반없음	PACE 녹색리모델링 응사
일본	재산세 기반없음	취등록세 감면

Made with: GAMMA



시작출처: 미디어제작

"**李대통령 "박정희처럼 AI고속도로 깔 것"…인공지능에 올인**"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쳐져"…절박한 한국의 AI 10조 승부수**"

**이 대통령, 젠슨 황 만나 "한국 목표는
아태지역 AI 수도"**

Made with GAMMA

미래 정책의 핵심 'AI', 조세 제도가 뒷받침해야!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 'AI' 산업 직결



Made with GAMMA

개선안 ① – 가산율 폐지

- IBS 항목 삭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서 제외
- 분류 재정의
'특수·사치 설비' 분류 해제
- 세수 영향 최소화
서울시 가산율 적용 0.1% 세액 0.01%미만

※ 특수설비였던 엘리베이터·중앙공조장치는 2009년도 가산율 폐지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현 행	변 경
(1)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input type="radio"/>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 빌딩관리요소 4가지 - 빌딩관리요소 5가지이상	가산율 0.05 0.10	가산율 0.05 0.10	폐지

Made with GAMMA

**개선안 ② – AI 활성화 정책 지원을 위한 “지능형 건축물”
→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 신설(지특법)**

등급 IBS	유지 기간	요건 미충족 시 추징
1등급 IBS	10%	
2등급 IBS	5%	
3등급 IBS	3%	

Made with GAMMA

이해관계자 영향 분석

이해관계자	영향 분석
① 납세자	세부담 ↓, 에너지 관리투자 ↑
② 지자체	단기 세수 ↓ 장기 건축물 가치·세수 ↑
③ AI·건설사·엔지니어링 업계	스마트빌딩 시장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④ 국가	텐소중립 목표 달성 ↑ AI 대전환 →100년 대계 실현

Made with GAMMA

기대효과

가산율 폐지
특수설비 시대의 유물

이중 효과
폐지 + 감면으로 친환경·AI 기술
산업발달 및 조세형평 동시 달성

경제 선순환
스마트건축 활성화가 곧 세수 기반 확충

Made with: GAMMA

감사합니다

강남구 재산세과 법인조사팀장 임현희

50
SINCE 1978
강남구 개청
50주년

PART 2

적극적인 세원관리로 구 재정 확충

- 01 257억 원의 숨은 조각을 맞추다**
- 법인조사팀 신설과 공정 과세를 향한 2년의 기록 -
재산세과 법인조사팀
- 02 소통이 만든 기적, 10년 만의 1위**
-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며 이뤄낸 징수율 1위의 기록 -
재산세과 재산세총괄팀
- 03 대의 변화를 읽다, 공정의 기준을 넓히다**
- 가상자산부터 외국인 납세자까지, 징수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
세무관리과 세무관리과38세금징수1팀, 세무관리과38세금징수2팀

PART 2.
적극적인 세원관리로 구 재정 확충

CHAPTER

01

257억 원의 숨은 조각을 맞추다

법인조사팀 신설과 공정 과세를 향한
2년의 기록

재산세과 법인조사팀

임현희 법인조사팀장, 이경일 주무관, 김성미 주무관, 이우성 주무관,
송두영 주무관, 김정모 주무관, 정혜린 주무관

성과요약서

강남에선 세금 회피 안돼!**추진 개요****☑ 배경 및 목적**

- ▶ 신종·지능형 탈세 수법 고도화에 대응하는 과학적 조사 기법 도입 필요
- ▶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 추진 전략

- ▶ 조직 강화: 법인조사팀 신설(2024.7.) 및 전문 조사반 구성을 통한 세무조사 역량 집중
- ▶ 기법 혁신: ‘사전검토 → 허위확인 → 실질특정’의 3단계 체계적 조사 모델 정립
- ▶ 기관 협업: 빅데이터 분석 및 타 기관 자료 연계를 통한 은닉 세원 정밀 분석

**추진 성과**

(2024~2025년)

☑ 법인 세원 발굴 실적: 총 632건, 257억 원 추징

- ▶ 2024년: 292건, 124억 원 (목표 대비 221% 달성)
- ▶ 2025년(10월 기준): 340건, 133억 원 (목표 대비 227% 달성)

☑ 주요 유형별 세원발굴 사례

- ▶ 허위 본점 이용 중과세 회피: 공유오피스 약용 법인 등 65건, 35억 원 추징
- ▶ 휴면법인 인수 약용: 부동산 취득 후 중과세 회피 시도 14건, 46억 원 추징
- ▶ 본·지점 설치/사용 중과 누락: 대도시 외 법인의 관내 부동산 사용 63건, 58억 원 추징
- ▶ 고급주택/사치성 재산: 주상복합 내 불법 용도변경 등 7건, 18억 원 추징

**기대 효과****☑ 조세 정의 실현**

- ▶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 및 성실 납세 분위기 확산

☑ 재정 확충 기여

- ▶ 목표를 200% 이상 초과 달성하며 구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



01

257억 원의 숨은 조각을 맞추다

- 법인조사팀 신설과 공정 과세를 향한 2년의 기록 -

프롤로그: 강남, 비즈니스의 중심에서 공정을 외치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인 강남구는 매년 수만 개의 법인이 설립되고 사라지는 역동적인 곳입니다. 기업 활동이 활발한 만큼, 복잡한 지방세법을 오인하거나 제도의 협점을 파고드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이 덜 걷히는 문제를 넘어,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기업에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누락된 세원은 찾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2024년 7월, 강남구 재산세과에 ‘법인조사팀’이 신설된 이유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누군가를 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하게 얹힌 실태를 풀어 정확한 과세 기준을 세우고, ‘공정함’이라는 행정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법인팀이 발로 뛰며 맞춰나간 257억 원의 퍼즐 조각들을 소개합니다.

제1막: 공유오피스, 서류와 현실의 간극을 좁히다

2025년, 조사팀은 관내 공유오피스 현황을 분석하던 중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불과 몇 평 남짓한 공간에 수십 개의 법인이 본점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사업 활동의 흔적은 미미해 보였습니다. 현행법상 과밀억제권역인 강남구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이를 피하고자 서류상 본점은 공유오피스나 타 지역에 두고, 실제 업무는 강남의 별도 사무실에서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문이 닫힌 공유오피스의 우편함에는 수취인 불명 우편물만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불리 판단하지 않고 ‘사전 분석 → 현장 확인 → 실질 특정’이라는 3단계 검증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처, 임직원의 실제 근무지 등을 데이터로 분석해 실질적인 본점 소재지를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형식적인 주소지만 두고 운영되던 법인 65곳을 확인하고 35억 원의 세액을 바로잡았습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실질 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2막: 휴면 법인,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다

또 다른 과제는 ‘휴면 법인 인수’ 사례였습니다.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나면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가 배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운영하지 않는 오래된 법인을 헐값에 인수한 뒤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곁보기에는 합법적인 절차처럼 보였기에 더욱 세밀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등기부등본상의 임원 변동 내역과 매출 장부를 면밀히 대조했습니다. 인수 시점을 전후해 임원이 전원 교체되거나, 수년간 없던 매출이 갑자기 발생한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법인의 껍데기만 이용해 세금을 줄이려던 시도들을 확인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러한 사례 14건을 밝혀내고 4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는 제도의 허점을 약용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법의 취지를 올바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제3막: 사무실의 재정의, 용도를 바로잡다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에서도 과세의 사각지대는 존재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상가로 신고하고 취득했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용도의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 조사 결과, 회의 테이블 대신 침대와 가전제품이 놓여 있고, 수도와 전기 사용 패턴이 일반 가정집과 동일한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곳은 테라스에 개인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 기준을 재정립했고, 7건에 대해 1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에필로그: 257억 원이 갖는 의미

지난 2년간 법인팀이 발굴한 누락 세원은 총 257억 원. 이 숫자는 단순한 세입 증대를 넘어, 강남구의 세무 행정이 얼마나 촘촘하고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강남구에서는 원칙이 통한다”는 신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들이 존중받는 환경. 이것이 우리 법인팀이 늦은 밤까지 장부를 검토하고 현장을 누비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공정한 과세의 기준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PART 2.
적극적인 세원관리로 구 재정 확충

CHAPTER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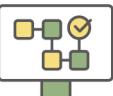
소통이 만든 기적, 10년 만의 1위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며
이뤄낸 정수율 1위의 기록

재산세과 재산세총괄팀

표지영 재산세총괄팀장, 조광섭 주무관

성과요약서

강남구, ‘공감세정’으로 재산세 징수율 1위 달성**추진
개요****▣ 배경 및 목적**

- ▶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부과액(약 1조 3천억 원)으로 인한 징수율 정체의 한계 극복
- ▶ 단순 징수 위주 행정에서 탈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감 세정’으로 패러다임 전환

▣ 추진 전략

- ▶ 권익 보호: 분할납부, 납부유예, 주택담보노후연금 감면 등 3대 권리보호 제도 적극 홍보
- ▶ 스마트 송달: 전자고지 오류 및 반송분에 대한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으로 틈새 공략
- ▶ 위기 대응: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납기 연장(10.15.) 및 전방위 홍보

**추진
성과****▣ 서울시 자치구 중 10년 만에 건수 징수율 “1위” 달성**

- ▶ 7월 정기분 금액 징수율 96.8%로 서울시 1위 달성 (전년 대비 1% ↑)
- ▶ 7,9월 총 징수액: 총 1조 2,562억 원
- ▶ 성과 의의: 고질적인 징수율 4~5위권 정체를 극복하고 ‘강남구 징수율 1위’라는 기적적인 성과 창출

▣ ‘카카오톡 모바일 고지’를 통한 징수율 제고 (탄소중립 실천)

- ▶ 추진내용: 종이고지서 반송 및 미납자 대상 모바일 안내문 발송 (기존 재발송 방식 개선)
- ▶ 징수효과: 3차례 걸친 발송으로 7,9월 합계 9,248건, 184억 원 징수

▣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활성화 (전년 대비 실적 대폭 상승)

- ▶ 분할납부: 7,9월 합계 3,864건, 969억 원 (전년 대비 14% 증가)
- ▶ 납부유예: 7,9월 합계 45건, 124억 원 (전년 대비 137% 증가)
- ▶ 주택연금 감면: 7,9월 합계 464건, 47억 원 (전년 대비 43% 증가)

**기대
효과**

- ▣ ‘세금을 걷는다’는 관점에서 ‘납세 편의를 돋운다’는 관점으로의 전환이 징수율 1위의 원동력
- ▣ 국가 재난 상황(전산 장애)에서도 유연한 납기 연장과 적극적인 홍보로 구민 혼란 최소화

02

소통이 만든 기적, 10년 만의 1위

-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며 이뤄낸 징수율 1위의 기록 -

프롤로그: 숫자의 함정, 그리고 새로운 질문

“강남구는 세금 낼 여력이 충분한 분들이 많으니 징수율도 당연히 1등 아닙니까?” 외부에서 강남구 세무행정을 바라볼 때 흔히 하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 부과액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곳입니다. 2025년 기준 부과액만 무려 1조 2,500억 원이 넘습니다. 모수가 워낙 크다 보니 미납액의 절대 규모도 클 수밖에 없고, 해외 체류자나 다주택자가 많아 고지서 송달조차 쉽지 않은 것이 강남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강남구의 재산세 징수율은 늘 상위권 문턱인 4~5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워낙 규모가 커서 구조적으로 징수율을 더 올리기 어렵다”는 패배감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우리 재산세과는 기존의 관행에 물음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못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도를 몰라서, 혹은 방법이 복잡해서 망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책상 위의 계산기를 잠시 치우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징수의 핵심을 ‘독촉’이 아닌 ‘안내’와 ‘지원’으로 전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1막: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죠”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미납의 원인을 원점에서 재분석해 보니 상당수의 미납 사례는 고의적인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부족, 혹은 세금 납부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세금이 부담되는 분들에게는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눠 낼 수 있는 ‘분할납부’를, 당장 현금이 부족한 고령의 납세자에게는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납부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구청 홈페이지,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까지 가용한 모든 매

체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나눠 내세요. 구청이 돋겠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분할납부 신청은 전년 대비 12.5% 증가했고, 납부유예 신청 건수는 무려 80%나 늘어났습니다. 구청이 먼저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손을 내밀자, 납세자들도 성실 납부로 화답한 것입니다.

제2막: 손안의 고지서, 텁새를 메우다

또한, 우리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반송 고지서’ 해결에 나섰습니다. 이사나 장기 출장 등으로 방치되거나 반송되는 종이 고지서가 징수율 하락의 주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종이 고지서가 반송된 분들, 그리고 납기 마감이 임박한 분들에게 스마트폰으로 납부 안내를 발송했습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터치 한 번이면 내역을 확인하고 위택스(WeTax)로 연결되어 납부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였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라 고지서를 못 봤는데, 카톡 덕분에 가산세를 안 물게 되었습니다. 정말 편리하세요.”

납세자들의 호평 속에 7월에만 4,448건, 68억 원의 세금이 모바일 안내를 통해 납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걷은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겪던 송달의 불편함을 기술로 해결해 준 결과였습니다.

제3막: 9월, 화마(火魔)를 넘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9월에 찾아왔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납부 마감을 앞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세금 수납 시스템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납부 기한이 10월 15일로 긴급 연장되었지만, 이를 모르는 납세자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카카오톡’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기한 연장 사실을 모르는 2만여 명의 미납자에게 개별 알림톡을 발송했습니다. “시스템 장애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기한이 연장되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납세자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강력한 납부 독려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9월 한 달간 모바일 알림톡을 통해 4,800건, 116억 원이 추가로 징수되었습니다. 7월과 9월, 두 번의 결정적 순간에 모바일 고지는 징수율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납세자 권리구제 역시 톡톡히 이뤄냈습니다. 7월과 9월을 합쳐 분할납부 신청은 3,864 건(9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당장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한 납부유예는 45건(124억 원)으로 무려 137%나 폭증했습니다. 또한, 고령층을 위한 주택연금 감면도 464건(47억 원)으로 43% 늘어났습니다.

에필로그: 1위보다 값진 신뢰

이로써 강남구는 2025년 7월 징수율 96.8%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단독 1위라는 기적을 쏘아 올렸고, 9월 징수액 까지 포함해서는 총 1조 2,562억 원을 징수하며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1위라는 순위보다 더 값진 것은 구민들이 보여준 ‘신뢰’입니다. 세금 징수는 강제로 뺏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불편을 덜어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음을 읽는 세정, 1위로 응답하다.” 이 슬로건은 이제 강남구 세무부서의 자부심이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변함없이 구민의 마음을 읽는 스마트하고 따뜻한 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CHAPTER

03

대의 변화를 읽다, 공정의 기준을 넓히다

가상자산부터 외국인 납세자까지,
징수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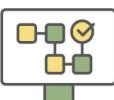
세무관리과 세무관리과38세금징수1팀, 세무관리과38세금징수2팀

이미용 세무관리과38세금징수1팀장

마선희 세무관리과38세금징수2팀장

이도환 주무관, 장용은 주무관, 이유리 주무관, 이원직 주무관

성과요약서

끝까지 추적한다: 디지털 자산과 국경 없는 체납 징수**추진
개요****▣ 배경 및 필요성**

- ▶ 가상자산 등 디지털 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신종 체납 수법 확산에 따른 대응책 마련
- ▶ 외국인 거주자 증가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 증가 및 내국인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대두
- ▶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투트랙(Two-Track)' 징수 전략 필요

▣ 추진 전략

- ▶ 신종 징수: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하여 체납자의 숨은 코인(Coin) 추적 및 압류
- ▶ 사각 해소: 외국인 등록정보 현행화 및 '영어 체납 고지서' 발송 등 맞춤형 징수 활동 전개
- ▶ 상생 징수: 11~12월 체납 집중정리기간 운영 시,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및 분납 유도

**추진
성과****▣ 서울시 자치구 최초, 가상자산 압류를 통한 1억 4천만 원 징수**

- ▶ 추진내용: 2025년 상반기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 대상 체납자 보유 계정 조회 및 압류
- ▶ 징수실적
 - 압류: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총 2억 1천만 원 상당 압류
 - 징수: 압류 후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1억 4천만 원 징수
 - 사례: 고액 체납자 A씨, 가상자산거래소 직접 동행하여 1억 2천만 원 즉시 징수

▣ 외국인 체납자 특별정리 및 징수 사각지대 해소

- ▶ 추진내용: 과년도 외국인 체납자 2,175명(체납액 5억 원) 대상 전수 조사 및 주소지 현행화
- ▶ 징수실적: 거소지 불명자 추적 및 영문 고지서 발송을 통해 166명, 3천 7백만 원 징수
- ▶ 제도개선: 외국인 비자 연장 시 지방세 납부 증명 의무화 등 법령 개정 건의 병행

▣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및 생계형 체납자 지원

- ▶ 강력징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가택 수색 등 행정 제재 강화
- ▶ 회복지원: 영세 사업자·생계형 체납자 대상 번호판 영치 보류 및 분할 납부 승인

**기대
효과**

- ▣ “디지털 자산도 압류된다”는 인식 확산으로 조세 정의 실현 및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
- ▣ 외국인 및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

03

대의 변화를 읽다, 공정의 기준을 넓히다

- 가상자산부터 외국인 납세자까지, 징수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

프롤로그: 징수, 강제에서 관리로

세금 징수라고 하면 흔히 ‘압류’나 ‘독촉’ 같은 강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2025년 강남구 세무관리과가 정의하는 징수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징수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돋는 관리의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현금이나 은행 예금에만 자산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디지털 지갑 속 가상자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국경을 넘나들며 경제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행정은 현실과 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납부할 방법’을 찾아주고, 제도를 몰라 체납한 사람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공정한 세무 행정이라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제1막: 디지털 자산, 숨은 자산이 아닌 새로운 자산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자산 관리의 트렌드는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은 이제 일부의 투기 수단이 아닌, 보편적인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세무 행정 시스템이 이러한 자산의 이동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은행 계좌에는 잔고가 없는데, 생활 수준은 여유롭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감정적인 비난 대신 데이터에 주목했습니다. 납세자가 자산을 은닉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디지털 영역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가상자산 역시 엄연한 재산 가치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강남구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조회한 결과, 예상대로 상당수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강제 매각보다는 ‘압류 예고’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먼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합리적인 절차였습니다.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 중이던 A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금 유동성이 막혀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회 결과, 그는 수년 전 투자한 가상자산이 크게 올라 상당한 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A씨에게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며 안내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가상자산은 압류 조치될 예정입니다. 다만, 체납액을 납부하실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해 드립니다.”

A씨의 반응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당시 코인 시장은 상승세였기에, 지금 강제 매각당하는 것보다 세금을 내고 자산을 지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다음 날 구청을 방문해 1억 2천만 원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솔직히 코인까지 확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덕분에 미뤄둔 숙제를 끝낸 기분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반기에만 1억 4천만 원의 세입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행정이 ‘숨바꼭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자산 형태에 맞춰 ‘적법한 과세권’을 행사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한 결과였습니다.

제2막: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다 (외국인 체납 관리)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강남구에는 수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외국인 체납 건수도 증가하여 2025년 기준 2,175명, 체납액은 5억 원에 달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외국인 체납의 대다수는 주민세나 자동차세 같은 소액 체납이었고, 납세자들은 납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납세 의무 자체를 모르거나’,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언어와 제도의 차이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 이것이 외국인 체납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체납자’로 낙인찍기 전에, 우리 시스템이 그들에게 친절했는지를 먼저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글로만 된 고지서는 그들에게 암호문이나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9월, 우리는 ‘외국인 납세자 알 권리 강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확한 주소지 파악이었습니다. 잊은 이사로 인해 반송되는 고지서가 없도록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거주지를 현행화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영문 고지서’ 발송이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내라”는 독촉장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세가 무엇인지, 왜 내야 하는지, 내지 않으면 비자 연장 등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고 정중한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외국인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I received this letter. How can I pay? (이 편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면 됩니까?)” 대부분은 몰라서 못 냈던 선의의 납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자, 누구보다 신속하게 납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외국인 전용 상담 창구를 통해 가상계좌 납부, 해외 송금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 연락이 닿지 않던 166명의 외국인이 체납액 3천 7백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난 한 외국인 주재원은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인 줄 몰랐다. 의무를 알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이 언어의 장벽을 낮추자, 납세 의식은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제3막: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연함을 발휘하다

징수 행정의 가장 어려운 숙제는 ‘형평성’과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모든 체납자에게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능사일까요? 11월 집중 징수 기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현장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했습니다.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 명단 공개와 가택 수색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구민에 대한 예의이자,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거리에서 번호판 영치 단속 중에 만난 한 1톤 화물트럭 운전사의 사례입니다. 시스템상 그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번호판을 떼야 했지만, 현장에서 본 그의 트럭은 낡았고 짐칸에는 배달 물품이 가득했습니다. 그 트럭은 그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수단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지금 번호판을 떼면 당장 일을 못 합니다.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목돈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의 호소는 변명이 아닌 절박한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행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법을 집행한다는 명분으로 한 가정의 생계 수단을 면추게 하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할까요?

우리는 ‘유연한 법 집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를 구청으로 안내하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번호판 영치를 한시적으로 보류하는 대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매달 조금씩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분할 납부’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복지 부서와 연계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긴급 생계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는 “국가가 나를 벼랑 끝으로 미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주는 느낌을 받았다”며 감사 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후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분할 납부금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트럭 이 멈추지 않았기에 소득이 발생했고, 그 소득으로 세금을 갚아나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에필로그: 공감과 원칙이 공존하는 스마트 세정

2025년 강남구 세무관리과의 징수 활동은 단순히 체납액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과세의 공백을 메웠고, 친절한 소통으로 외국인 납세자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했습니다. 또한, 기계적인 징수 대신 납세자의 형편을 살피는 유연함으로 상생의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세금 징수는 ‘빼앗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납세자를 잠재적 범법자가 아닌 ‘우리 사회의 동반자’로 바라볼 것입니다. 공정한 원칙을 지키되, 그 적용 과정에서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 그것이 강남구가 지향하는 스마트 세정의 미래입니다.

PART 3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 01 당신의 성실함이 강남의 자부심입니다
 - 제59회 납세자의 날 표창 수여식과 특별한 의료 혜택 -
세무관리과 세무행정팀
- 02 광장으로 나온 전문가들
 - 2025년 현장 세무상담을 이끈 재능기부 세무사들의 이야기 -
재산세과 법인조사팀

PART 2.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CHAPTER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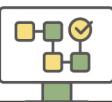
당신의 성실함이 강남의 자부심입니다

2025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과
특별한 의료 혜택

세무관리과 세무행정팀

김회동 세무행정팀장, 김한필 주무관, 백민지 주무관

성과요약서

강남구, 배우 고소영 등 성실납세자 10명에 표창장 수여**추진 개요****☑ 배경 및 목적**

-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 조성
- ▶ 성실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우대 혜택을 발굴 필요

☑ 추진 전략

- ▶ 모범 및 유공납세자에게 표창장과 인증패를 수여함으로써 명예 고취
- ▶ 관내 대형 종합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 광동병원)과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파격적인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강남형 우대 모델' 구축

**추진 성과****☑ 2025년 모범 및 유공납세자 110명 선정 및 표창 수여**

- ▶ 최근 8년 이상 체납 없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100명과 10년 이상 기여도가 높은 유공납세자 10명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

☑ 관내 의료기관 업무협약 체결 및 의료비 최대 30% 할인 혜택 신설

- ▶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및 가산의료재단 광동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선정된 납세자 및 그 가족에게 종합건강검진 비용 등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 마련
- ▶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중 혜택으로 제도화하여 성실 납세가 개인의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

**기대 효과**

☑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특별한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함

☑ 지역 의료기관이 동참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민관이 함께 성실 납세자를 예우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강남구만의 품격 있는 세무 행정 서비스를 구현함



01

당신의 성실함이 강남의 자부심입니다**- 2025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과 특별한 의료 혜택 -**

프롤로그: 3월의 약속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입니다. 이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탱해 준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강남구청에서는 매년 이날을 기념하여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바로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입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 선정된 인원은 총 110명. 최근 8년간 단 한 번의 체납 없이 지방세를 납부한 모범납세자 100명과, 10년 이상 연간 5천만 원 이상을 납부하며 구 재정에 크게 기여한 유공납세자 10명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수여식에 참석한 유공납세자 수상자 10명의 얼굴에는 흐뭇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건넨 표창장과 인증패는 단순한 종이와 상패가 아니라, 그들이 지난 시간 동안 지역 사회를 위해 지켜온 신의(信義)에 대한 증명서였습니다.

하지만 행사를 준비하던 세무관리과 직원들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표창장과 주차비 면제 혜택만으로 이분들의 현신에 충분히 보답했다고 할 수 있을까? 강남구의 위상에 걸맞은, 그리고 납세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우리가 주목한 것은 건강이었습니다.

제1막: 예우의 격을 높이다

성실 납세자가 건강해야 지역 사회도 건강하다. 이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관내 대형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강남구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 수준을 자랑하는 병원들이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프라를 성실 납세자를 위한 혜택으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4월, 구청 실무진은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가산의료재단 광동병원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병원 측 관계자들과의 미팅에서 우리는 단순히 할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 성실히 의무를 다한 분들에게 의료기관이 존경을 표하는 사



회적 공헌(CSR)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강남구의 발전은 병원과 같은 우수한 기관, 그리고 성실한 납세자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병원이 동참해 주신다면, 이는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병원 측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수차례의 실무 협의 끝에 파격적인 조건이 도출되었습니다. 모범 및 유공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종합건강검진 비용 최대 30%를 할인해 주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제휴 할인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성실 납세자에 대한 확실한 예우를 갖추겠다는 양 기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제2막: 의료 인프라, 납세자 혜택이 되다

2025년 4월 23일 오전 11시, 강남구청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의미 있는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강남구와 관내 주요 의료기관인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산의료재단 광동병원이 함께하는 ‘모범·유공납세자 우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이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을 비롯해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조상현 광동병원장 등 주요 관계자 7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강남구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성실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은 지역 사회 공헌(CSR)을



실천한다는 양측의 이해가 일치하여 성사되었습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일로부터 1년간, 강남구가 선정한 모범 및 유공납세자에게 종합건강검진 비용의 30%를 감면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혜택의 대상을 납세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여 가족 전체가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 병원이 공문서로 약속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행정 서비스’의 일환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선순환의 고리

2025년 강남구가 시도한 의료비 할인 혜택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실 납세라는 의무 이행이 존경과 혜택이라는 권리로 되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표창장이 명예를 드높였다면, 의료비 할인은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돌보았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까운 지출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우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PART 2.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CHAPTER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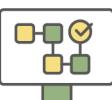
광장으로 나온 전문가들

2025년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회를
이끈 재능기부 세무사들의 이야기

재산세과 법인조사팀

임현희 법인조사팀장, 이경일 주무관, 김성미 주무관, 이우성 주무관,
송두영 주무관, 김정모 주무관, 정혜린 주무관

성과요약서

세무상담회 재능기부 세무사 감사장 수여**추진
개요****▣ 배경 및 목적**

- ▶ 복잡한 세법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구민들에게 전문적인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
- ▶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과 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추진 전략

- ▶ 한국세무사회(역삼지역회 등)와 긴밀히 협업하여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재능기부 세무사’ 인력 풀(Pool)을 구성
- ▶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축제, 전통시장 등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문턱 없는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여 접근성을 극대화

**추진
성과****▣ 2025년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세무 상담회 성공적 운영**

- ▶ 도곡초여름 피크닉축제(6월), 야식행복 페스티벌(9월), K-뷰티 스트릿 페스타(10월) 등 총 9회에 걸쳐 현장 상담 부스를 운영함
- ▶ 총 1,024명의 구민 및 시장 상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실생활과 밀접한 세무 고민을 1:1로 무료 상담하여 해결책을 제시함

▣ 재능기부 세무사 감사장 수여를 통한 자긍심 고취

- ▶ 한 해 동안 대가 없이 지식 나눔을 실천한 세무사들을 초청하여 구청장이 직접 간담회 개최 및 감사장 수여
- ▶ 전문 자격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고 지속 가능한 재능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 마련

**기대
효과**

- ▣ 경제적 이유로 세무 상담을 포기했던 구민들의 고충을 해결하여 억울한 세금 부과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 ▣ 행정기관과民間 전문가가 협력하여 구민에게 다가가는 적극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

02

광장으로 나온 전문가들

- 2025년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회를 이끈
재능기부 세무사들의 이야기 -

프롤로그: 상담료 0원의 무게

강남구에는 수많은 세무사 사무실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그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비싼 상담료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어려운 용어로 가득한 세금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장 상인들이나, 평생 모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어르신들에게 세무 전문가는 만나기 힘든 존재였습니다. 강남구는 이러한 세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회를 기획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동력은 예산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전문 지식을 대가 없이 나누기로 약속한 재능기부 세무사들입니다.

제1막: 넥타이를 풀고 현장으로

6월의 도곡초여름 피크닉축제, 9월의 야식행복 페스티벌, 그리고 10월의 K-뷰티 스트릿 페스타까지. 구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이 상담 부스가 차려졌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쾌적한 사무실 대신, 땀이 흐르는 야외 천막 아래에 세무사들이 앉았습니다.

세무사님들은 축제 현장의 소음과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무사님, 제가 1가구 2주택인데 이번에 시골집을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장사가 안돼서 부가세를 못 냈는데 분납이 될까요?” 질문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세무사들은 법전을 펼치는 대신,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상인에게는 절세할 수 있는 팁을 메모지에 꼼꼼히 적어 건넸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세무사는 상담을 마친 할머니께서 고맙다며 건넨 시원한 생수 한 병을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수입료를 받고 일하지만, 여기서 듣는 ‘고맙다’는 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제가 가진 지식이 누군가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이곳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제2막: 현신에 대한 작은 보답

2025년 한 해 동안 총 9회의 찾아가는 상담회가 열렸고, 1,024명이 넘는 구민이 무료로 세무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휴일과 평일 오후를 기꺼이 반납한 재능기부 세무사들의 현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2월, 강남구는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세무사님들을 모시고 작지만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재능기부 세무사 감사장 수여식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세무 공무원들은 진심을 담아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감사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강남구의 세무 행정이 책상 위에 머물지 않고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준 것에 대한 인정이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준 파트너십의 증표입니다.

에필로그: 함께 만드는 따뜻한 세정

강남구에는 여전히 세금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행정의 힘만으로는 달기 힘든 곳까지 온기를 전해준 재능기부 세무사들. 그들과 함께 만드는 강남구의 세정은 차가운 숫자가 아닌 따뜻한 나눔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문턱 없는 세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PART 4

AI를 활용한 스마트 혁신 세무행정

- 01 김 팀장의 선택, 경험을 데이터로 치환하다
 - 지방세 표준교재를 학습한 강남구 자체 AI, GPTS 개발기 -
세무관리과 세무행정팀
- 02 코딩으로 찾아낸 권리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환급금 발굴 프로젝트 -
지방소득세과 세입관리팀

CHAPTER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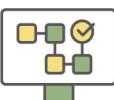
김 팀장의 선택, 경험을 데이터로 차환하다

지방세 표준교재를 학습한 강남구
자체 AI, GPTS 개발기

세무관리과 세무행정팀

김종현 세무행정팀장, 김한필 주무관, 재산세과 재산1팀, 최문경 주무관

성과요약서

국민만족! 조세심판 사례까지 담은 AI 지방세도우미 구축**추진
개요****▣ 배경 및 목적**

- ▶ 복잡한 부동산 대책과 난해한 세법으로 인해 민원인의 상담 수요는 폭증하나, 법령 및 참고자료 검색에 많은 시간 소요
- ▶ 인터넷 블로그나 일반 생성형 AI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민원인과의 마찰 증가 및 행정 신뢰도 저하 우려

▣ 추진 전략

- ▶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생성형 AI와 파이썬 코딩 기술을 세무 행정에 직접 접목하여 대량의 데이터 분석 효율성을 극대화
- ▶ 구청이 보유한 과세 데이터와 중소기업 현황 시스템을 교차 분석하여, 고용이 증가했으나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을 정밀 타겟팅
- ▶ 답변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판례를 10초 이내에 함께 제시하도록 설계하여 '할루시네이션(거짓 답변)' 방지 및 신뢰성 확보

**추진
성과****▣ 데이터 구축 및 시스템 개발**

- ▶ 조세심판원 결정례 8,425건(취득세 3,678건, 재산세 4,747건) 및 지방세 표준교재(2025년판) 7권 전면 학습 완료
- ▶ 챗GPT 플랫폼을 활용해 구 홈페이지와 연계 가능한 '강남구 맞춤형 지방세 GPTS' 3종 개발

▣ 업무 효율성 및 대외 성과

- ▶ 법령 검색 시간을 기존 30분 이상에서 10초 이내로 획기적 단축하여 민원 대응 속도 향상
- ▶ 9월 말 기준 누적 질의 1,000건 돌파 및 딜라이브TV 등 주요 언론 보도("강남구, 복잡한 세무행정에 챗GPT 도입")

**기대
효과****▣ 공무원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표준화되고 정확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만족도 제고**

- ▶ 전국 최초로 종이 서적 기반의 지방세 지식을 디지털 AI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스마트 세무 행정의 혁신 모델 제시

01

김 팀장의 선택, 경험을 데이터로 치환하다**- 지방세 표준교재를 학습한 강남구 자체 AI, GPTS 개발기 -**

프롤로그: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라는 말의 무게

“주무관님, 제가 오피스텔을 샀는데 이게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인터넷에서는 아니라 고 하던데,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수화기 너머 민원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신규 발령을 받은 지 3개월 차인 김 주무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지방세 법령집과 2025년판 표준교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3,000페이지가 넘는 홀자 속에서 민원인이 원하는 ‘정확한 답’을 찾는 건 서울에서 김 서방 찾기만큼이나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죄송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고 나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법제처 사이트를 뒤지고, 두꺼운 책을 넘기고, 선배님께 여쭤보느라 3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 사이 민원인의 불만은 쌓여가고, 직원의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이것이 비단 김 주무관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대책과 매년 바뀌는 세법 앞에서, 우리는 모두 ‘길 잃은 전문가’였습니다.

제1막: 무모한 도전, “책을 AI에게 먹여보자”

“만약에... 이 두꺼운 책들을 AI가 다 외우게 한다면 어떨까?” 어느 날 점심시간, 베테랑 김 팀장님이 던진 이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어넘겼습니다. 수억 원의 예산이 드는 시스템 구축을, IT 전문가도 아닌 세무 공무원이 맨손으로 해낸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박했습니다. 민원인들은 부정확한 블로그 정보나 일반 챗봇의 엉뚱한 답변을 들고 와 항의하기 일쑤였고, 우리는 그 오해를 바로잡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우리는 ‘비예산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예산이 아니라 ‘데이터’와 ‘집념’이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발행한 『지방세 표준교재』 7권과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8,425건을 확보했습니다. 밤낮으로 데이터를 정제하고, 챗GPT의 학습 모델에 이

방대한 지식을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RAG(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AI가 마음대로 소설을 쓰지 못하게, 반드시 우리가 입력한 공신력 있는 자료 안에서만 답을 찾고 근거를 제시하도록 ‘족쇄’를 채운 것입니다.

제2막: 10초의 기적, 할루시네이션을 넘어서

몇 달 간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강남구 AI 지방세 도우미(GPTS)’가 탄생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세 예외 규정 알려줘.” 엔터키를 누르자마자 커서가 깜빡거리더니, 정확히 3초 만에 답변이 쏟아졌습니다. “지방세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단순한 답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물론, 유사한 사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결문까지 링크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10초도 안 걸리는데요?” 테스트에 참여한 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0분 동안 책을 뒤져야 알 수 있었던 내용을, AI는 커피 한 모금 마실 시간에 완벽하게 정리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베테랑 팀장님의 노하우와 신규 직원의 검색 능력이 상향 평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디지털 세정의 새로운 표준이 되다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민원대에서는 더 이상 “찾아보고 전화드릴게요”라는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한쪽에 띄워진 AI 도우미가 실시간으로 답을 알려주니, 직원들은 자신감 있게 상담을 이어갔고 민원인의 목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2025년 4월, 딜라이브TV 뉴스에는 “강남구, 복잡한 세무행정에 챗GPT 도입”이라는 타이틀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만들어낸 이 시스템은 이제 전국의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는 ‘디지털 혁신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혁신은 거창한 예산이나 최첨단 장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민의 불편을 덜어줄까’를 고민하는 공무원의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매년 지방세 참고도서를 구매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내용을 찾고 답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왔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AI와 결합된 맞춤형 참고도서 시대가 예견되는바, 강남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더존데크월과 업무협약을 맺어 AI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하였으며 지방세 업무

편람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고, 이는 구민을 향한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치열한 노력의 결정체가 될 것입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GPT interface with a sidebar on the left containing various project and template options. The main area is titled 'GPT 만들기' (Create a GPT) with the sub-instruction 'Customize a version of ChatGPT for a specific purpose'. It lists four customized versions:

- 2.조세심판원 결정(재산세)**: 체팅 30+개, 모든 사람. Description: 결정기간(4747건) : 처음~20250806 내용 : 재산세 관련 주요 결정례를 사건별로, 결정유형, 정립, 사실...
- 1.조세심판원 결정(취득세)**: 체팅 50+개, 모든 사람. Description: 결정기간(5675건) : 20200909~20250827 내용 : 부동산 취득 후 사용 목적, 감면 요건 증축 여부, 정...
- 3.조세심판원 결정(재건축, 재개발 등)**: 나만 보기. Description: 조세심판원 결정문 사건번호: 1997-0554 ~ 2023 지4040 (2024.04.08.자까지) 주제 범위: 재건축·재...
- 지방세_표준교재(2025년)**: 체팅 1K+개, 모든 사람. Description: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발행한 「2025년 지방세 표준교재」를 기반으로 험직 꿈무원이 제작하였습니다. ■...

DEEP-T4X AI section on the left includes a 'New Chat' button and a list of recent chats.

cloud9님, 안녕하세요.
도서 데이터를 기반한 답변을 생성합니다.

Two book covers are displayed: '2025 개정판
풀뿌리 지방세' (2025 Revised Edition
Local Taxation for Everyone) and '2025
지방세 이론과 실무' (Theory and Practice of Local Taxation 2025).

A text input field at the bottom says '질문을 입력해주세요.' (Please enter your question.)

CHAPTER

02

코딩으로 찾아낸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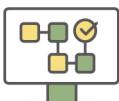
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환급금 발굴 프로젝트

지방소득세과 세입관리팀

홍기정 세입관리팀장, 이제철 주무관, 김효진 주무관, 변예원 주무관, 백은지 주무관

성과요약서

강남구, 전국 최초 AI로 공제 사각지대 중소기업 찾아 ‘숨은 세금’ 환급

**추진 개요****☑ 배경 및 목적**

- ▶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제도가 있음에도 홍보 부족과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
- ▶ 납세자가 신청해야만 혜택을 주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IT 기술을 활용해 숨은 권리를 찾아주는 적극 행정 구현

☑ 추진 전략

- ▶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생성형 AI와 파이썬 코딩 기술을 세무 행정에 직접 접목하여 대량의 데이터 분석 효율성을 극대화
- ▶ 구청이 보유한 과세 데이터와 중소기업 현황 시스템을 교차 분석하여, 고용이 증가했으나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을 정밀 타겟팅

**추진 성과**

- ☑** 인력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했던 공제 누락 의심 업체 176개소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함
- ☑** 5월 기준 4개 업체에 대해 3,600만 원을 즉시 환급 처리했으며, 전체 분석 결과 약 10억 원 규모의 숨은 세금을 환급 예정

**기대 효과**

- ☑**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기업이 없도록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기여함
- ☑** 첨단 IT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한 우수 사례로서, 전국 지자체에 스마트 세무 행정의 새로운 표준 제시

02

코딩으로 찾아낸 권리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환급금 발굴 프로젝트 -

프롤로그: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는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직원을 늘린 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계산 방식이 복잡하여 신청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 감면은 납세자가 신청해야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강남구 지방소득세과는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는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먼저 분석해서 대상자를 알려줄 수는 없을까?”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관내 수천 개의 기업 중 ‘중소기업이면서’, ‘고용이 늘었고’, ‘공제 신청을 안 한’ 기업을 찾아내는 것은 기존의 수작업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는 새로운 도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코딩’과 ‘AI’였습니다.

제1막: 행정, 기술을 입다

2025년 5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핵심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교집합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직원들은 파이썬(Python)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자체 분석 알고리즘을 짰습니다. 보안을 위해 외부망과 차단된 로컬 PC 환경에서 강남구의 주민세 과세 데이터 3,300여 건과 중소기업청의 기업 현황 데이터를 결합했습니다.

알고리즘은 명확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가?

전년 대비 종업원 수가 증가했는가?

그럼에도 공제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는가?

수작업이라면 몇 달이 걸렸을 데이터 대조 작업은 코딩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I는 1차 필터링을 거쳐 공제 누락 가능성성이 높은 176개 기업 리스트를 추출해 냈습니다.

니다. 이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타겟팅이었습니다.

제2막: 2억 여원의 주인을 찾다

추출된 리스트를 바탕으로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중 A사는 IT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형적인 중소기업이었습니다. A사는 지난 2년간 사업 확장을 위해 신규 인력을 대거 채용했으나,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해 고용지원 공제 혜택을 전혀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A사 담당자는 반신반의하며 구청에 문의했습니다. “저희가 공제 대상이 맞습니까? 세무 대리인도 놓친 부분이라 몰랐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사가 놓친 공제액을 산출하여 제시했고, 경정청구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검토 결과 A사는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는 즉시 절차를 밟아 A사에게 과오납금 4,500만 원을 환급했습니다. A사 대표는 “세금을 걷어가는 곳인 줄만 알았던 구청에서 먼저 환급금을 찾아주니 놀랍다”며, “환급금은 직원들의 복지와 재투자에 유용하게 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에필로그: 데이터가 증명한 적극 행정

A사의 사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약 2억 원 규모의 세금이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번 성과는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 신청서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기술을 활용해 능동적으로 납세자의 권리 찾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세무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빌딩)

주식회사 귀하

주민세(종업원분)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안내

1. 평소 우리 구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구에서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공제 요건을 충족하시는 사업소에서는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시 해당 조항을 적용하시기 바라며,
3. 기준에 공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적용받지 못하신 사업소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경정청구서, 중소기업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금여대장, 일용직급여명세서 등

경정청구서 서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종합민원 → 민원서식(사무면밀) → 지방소득세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

나. 제출 방법 : 전자우편(kimhyojin@gangnam.go.kr)

※ 전자우편(메일) 발송 후 담당자와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처 : 강남구청 지방소득세과 세입관리팀

라. 담당자 : 김효진(☎02-3423-5693)

2025. 5. 2.

강 남 구 청 장

PART 5 **5**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회

- 01** 광장에서 만난 세무사, 시장에서 만난 은행원
- 2025년, 책상을 떠나 현장으로 나간 기록 -
재산세과 법인조사팀

- 02** 새집의 설렘, 세금 걱정은 덜어드립니다
- 청담 르엘 입주 현장에서 펼친 내 집, 내 세금 설명회 -
재산세과 재산3팀

PART 5.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회

CHAPTER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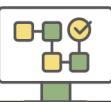
광장에서 만난 세무사,
시장에서 만난 은행원

2025년, 책상을 떠나 현장으로
나간 기록

재산세과 법인조사팀

임현희 법인조사팀장, 이경일 주무관, 김성미 주무관, 이우성 주무관,
송두영 주무관, 김정모 주무관, 정혜린 주무관

성과요약서

강남구, 축제 현장에서 만나는 ‘찾아가는 세무상담회’ 큰 호응**추진 개요****▣ 추진배경**

- ▶ 세무조력이 필요한 구민·소상공인·기업인들
- ▶ 민·관·공 협력을 통해 세무뿐만 아니라 금융, 경영 컨설팅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

▣ 추진 개요

- ▶ 사업명: 2025년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회
- ▶ 기간: 2025년 6월 ~ 12월 (총 9회 추진)
- ▶ 장소: 취·창업허브센터, 각 축제현장, 영동·개포·도곡시장 등 관내 주요 거점
- ▶ 참여기관: 강남구청, 한국세무사회, 신한은행, 한국무역협회 등

**추진 내용****▣ 테마별 맞춤형 상담 운영**

- ▶ 축제형: 야식행복 페스티벌, K-뷰티 스트릿 페스타 등 지역 축제와 연계
- ▶ 시장형: 주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연계,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 ▶ 창업형: 스타트업 축제 시 예비 창업자 대상 창업 세제 혜택 및 자금 지원 컨설팅 제공

▣ 전문성을 갖춘 종합 상담 서비스 제공

- ▶ 전문인력 배치: 마을세무사, 역삼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신한은행 직원 등
- ▶ 상담분야: 국세, 지방세, 불복 청구 절차, 대출 및 자산 관리 등

**추진 성과****▣ 상담 실적**

- ▶ 총 9회 개최, 약 512건, 1,024명의 심층 상담 진행 (소상공인, 창업자, 일반 구민 포함)
- ▶ 단순 상담을 넘어 실제 절세 방안 및 권리 구제 절차 안내로 구민 만족도 제고

**▣ 협업 모델 구축 및 언론 보도**

- ▶ 지자체-세무서-금융기관이 협업하여 ‘찾아가는 행정’의 모범 사례 제시
- ▶ 서울신문 등 주요 언론사 보도를 통해 ‘적극 행정’ 및 ‘소통 행정’ 이미지 확산

01

광장에서 만난 세무사, 시장에서 만난 은행원**- 2025년, 책상을 떠나 현장으로 나간 기록 -**

프롤로그: 세무서 문턱이 너무 높다면

“세금이 궁금한데 구청이나 세무서까지 가기는 좀 부담되고, 세무사 사무실에 가자니 비용이 걱정되고...” 우리가 만난 많은 구민이 호소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특히 하루하루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전통시장 상인분들이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 정신이 없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세무 상담’은 필요하지만 땡기 어려운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강남구 재산세과는 고민했습니다. “구민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구민들이 계신 곳으로 가면 어떨까?” 그렇게 2025년, 우리는 익숙한 사무실 책상을 벗어나 사람들 이 가장 많이 모이는 광장으로, 그리고 삶의 활기가 넘치는 시장 한복판으로 나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그리고 신한은행의 전문가들과 함께 ‘세무 어벤져 스’를 꾸려서 말이죠.

제1막: 축제의 현장, 상담이 즐거워지다

9월의 어느 날, 맛있는 냄새와 음악 소리가 가득한 ‘야식행복 페스티벌’ 현장. 그 한편에 조금 낯선 부스가 차려졌습니다. 바로 ‘찾아가는 세무상담회’ 부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축제를 즐기려 온 시민들이 “여기서 무슨 세무 상담을 해?”라며 의아한 눈빛으로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곧 부스 앞은 상담을 기다리는 줄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대 부부는 유모차를 끌고 축제에 왔다가 우연히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당첨 후 취득세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축제 구경 왔다가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으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딱딱한 상담실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가 오가니 질문도 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마을세무사님들은 어려운 세법 용어 대신 쉬운 말로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고, 구민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세무 행정이 꼭 엄숙하고 무거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제2막: 시장 상인들의 든든한 지원군

추석을 앞둔 개포시장과 영동전통시장. 명절 대목 준비로 분주한 상인분들 곁으로 우리가 찾아갔습니다. 상인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역시나 세금이었습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세금은 자꾸 나오는 것 같고,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음식점 사장님의 하소연에 우리는 기꺼이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세무사님과 함께 사장님의 매출 규모와 신고 내역을 살피며, 혹시 놓치고 있는 공제 혜택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드렸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신한은행 직원이 자금난을 겪는 상인에게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상품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로 시작해 지금 융통 상담까지 한자리에 해결되니, 상인분들은 “은행 갈 시간도 없었는데 정말 고맙다”며 음료수를 건네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복잡한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린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통이 상인분들에게는 든든한 응원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3막: 청년의 꿈에 날개를 달다

강남취·창업허브센터에서 열린 ‘스타트업 축제’에서는 열정 넘치는 예비 창업가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디어는 넘치지만, 사업자 등록부터 세금 처리까지 행정적인 절차 앞에서는 막막해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 중과세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우리는 미래의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그들에게 ‘규제’가 아닌 ‘지원’의 관점에서 세법을 설명했습니다. 창업 초기 쟁겨야 할 세제 혜택부터, 법인 설립 시 주의해야 할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문제까지 실질적인 팁을 전했습니다. 메모장에 꼼꼼히 필기하며 눈을 반짝이는 청년들을 보며, 우리는 강남구의 미래가 참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시작을 돋는 파트너가 되었다는 사실에 공무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에필로그: 현장에 답이 있다

총 9회, 512여 건, 1,024명의 상담. 2025년 우리가 현장에서 만난 것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구민들의 치열한 삶과 고민,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사무실 모니터 속 숫자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행정의 답은 책상 위가 아니라,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것을. 강남구 세무부서의 ‘찾아가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구민이 부르면 언제든,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세무상담회 홍보 포스터	
<p>제5차 강남구가 구민과 기업을 위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갑니다!</p> <h2>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회</h2>	<p>세무상담회 상담카드</p>
세무상담회 카드뉴스	
<p>2025년 2차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회</p> <p>"개포시장"에서 만나는 내 세무 주최회!</p> <p>2025년 9월 4일 [목] 13:00~17:00 개포시장 파리바게트 앞 (서울 강남구 개포로82길 13-9 세종빌딩 앞)</p>	

에필로그: 규제자가 아닌 조력자로

이날 설명회에서 만난 한 입주민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솔직히 구청 세무과는 세금 고지서 보낼 때나 연락하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찾아와서 절세 방법을 알려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과거의 세무 행정이 세금을 걷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돋는 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령 때문에 의도치 않게 가산세를 무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돋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입주민들의 입주를 축하하며 건넨 작은 안내 책자 하나, 따뜻한 상담 한마디가 구청과 구민 사이의 신뢰를 쌓는 벽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집에서의 출발이 세금 걱정 없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우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PART 5.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회

CHAPTER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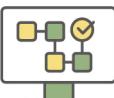
새집의 설렘, 세금 걱정은 덜어드립니다

청담 르엘 입주 현장에서 펼친
내 집, 내 세금 설명회

재산세과 재산3팀

김은영 재산3팀장, 김경미 주무관, 김종분 주무관, 박다을 주무관,
김성은 주무관, 하주원 주무관

성과요약서

강남구, 새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공무원이 직접 세무 상담**추진
개요****▣ 추진배경**

- ▶ 관내 대규모 재건축 단지(청담 르엘 등) 준공에 따라 입주민들의 부동산 세금 관련 문의 급증
- ▶ 다주택자 증과세, 생애 최초 감면 등 복잡한 취득세 규정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혼란과 불안 해소
- ▶ 입주 현장으로 찾아가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오납 예방 및 신뢰 세정 구현

▣ 행사 개요

- ▶ 행사명: <내 집, 내 세금> 새 아파트 입주민 설명회
- ▶ 일시 및 장소: 2025년 9월 13일(토), 청담 르엘 아파트 입주지원센터 인근
- ▶ 대상: 입주 예정자 및 조합원
- ▶ 운영방식: 1:1 대면 상담 부스 운영 및 자체 제작 안내 책자 배포

**추진
내용****▣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 안내 책자 제작: “처음 내는 세금 이야기” 등 입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Q&A)을 모아 자체 제작
- ▶ 주요 내용: 분양권 취득 시기별 세율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재산세 분할 납부 제도 등

▣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

- ▶ 전문 상담반 구성: 재산세과 팀장 및 실무 주무관 등 지방세 전문 경력관들로 구성
- ▶ 상담 내용: 개인별 주택 보유 현황에 따른 예상 취득세율 안내, 조합원 입주권 관련 세금 상담 등
- ▶ 편의 제공: 주말(토요일) 운영을 통해 직장인 입주민들의 참여 기회 확대

**추진
성과****▣ 상담 건수: 당일 현장 방문 상담 150여 건 진행****▣ 홍보물 배부: 안내 책자 500부 조기 소진 등 높은 호응****▣ 복잡한 세법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 사전 예방**

02

새집의 설렘, 세금 걱정은 덜어드립니다**- 청담 르엘 입주 현장에서 펼친 내 집, 내 세금 설명회 -**

프롤로그: 축하와 걱정 사이

“입주는 다가오는데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감이 안 잡혀요. 기존 집이 안 팔려서 일시적 2주택 신청을 해야 하는데, 기한을 넘기면 세금을 다 토해내야 한다면서요?”

새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기쁨이자 설렘입니다. 하지만 그 설렘 뒤에는 언제나 복잡한 세금이라는 현실적인 걱정이 따라옵니다. 특히 잣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전문가들조차 헷갈려 하는 부동산 세금 문제는 입주를 앞둔 주민들에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강남구에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많아 이러한 고민은 더욱 깊었습니다.

인터넷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강남구 재산세과는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자. 그렇게 기획된 것이 바로 내 집, 내 세금 새 아파트 입주민 설명회였습니다.



제1막: 주말의 입주지원센터, 상담 테이블을 펴다

2025년 9월 13일 토요일, 청담 르엘 아파트 입주 현장. 평일에는 직장 때문에 구청을 방문하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우리는 주말을 반납하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입주지원센터 근처에 간이 천막을 치고 상담 테이블을 펴자, 입주 절차를 밟으러 온 주민들이 하나둘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취득세 상담도 해주나요?” 한 중년의 조합원 부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일반 분양자와 달리 취득세 산정 방식이 복잡해 많은 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미리 준비해 간 자료를 펼쳐 놓고, 부부의 상황에 맞춰 예상 세액과 납부 기한을 꼼꼼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무사한테 물어봐도 말이다 달라서 답답했는데, 구청 담당자가 직접 설명해 주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안도하는 부부의 얼굴을 보며, 우리는 휴일 근무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2막: 이 책자, 하나 더 가져가도 될까요?

이날의 인기 스타는 단연 우리가 자체 제작한 안내 책자 내 집, 내 세금이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려운 세법 서적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민원 전화를 받으며 입주민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만 뽑아 만든 알짜배기 자료집이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언제까지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감면 요건은 무엇인지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이 Q&A 형식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준비해 간 500부의 책자는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광고만 잔뜩 뜨는데, 이건 정말 필요한 내용만 있네요. 이웃집에도 주고 싶은데 하나 더 없나요?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에 우리는 추가 인쇄를 약속해야 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라지만, 정작 구민들이 믿고 볼 수 있는 정확한 정보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컸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안내 책자</p> <div style="text-align: center;"><p>2025 내 집 내 세금</p><p>“처음 내 집, 놓치면 아까운 세금 이야기”</p><p>2025 내 집 내 세금</p><p>“처음 내 집, 놓치면 아까운 세금 이야기”</p><p>취득세 재산세 주택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p><p>강남구청 재산세과 www.gangnam.go.kr</p></div>	<p>홍보포스터</p> <div style="text-align: center;"><p>청담 L E E L 입주하시나요? 강남구청 재산세과 공무원이 미리 알려드려요</p><h2>LH 집, 내 세금 새 아파트 입주민 설명회</h2><p>꼭 꼭 필요한 세금, 1:1로 안내해드려요!</p><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5.9.13.(토) 10:00~16:00- 장소 : 청담 르엘 아파트- 무엇을 알려주나요?<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checked="" type="checkbox"/> 취득세<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산세<input checked="" type="checkbox"/> 종합부동산세<p>오셔서 상담받으시고 커피쿠폰 받아가세요!</p><p>문의처 : 강남구청 재산세과 02-3423-5663~7</p></div>
--	---

PART 6

구민과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무설명회

- 01 세금, 두려움이 아닌 전략이 되다
 - 450명 구민과 함께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 현장 -
세무관리과 세무행정팀
- 02 파트너, 그 이상의 세무행정
 - 전국 최초, 기업의 성장을 돋는 세무설명회 개최 -
재산세과 법인조사팀

PART 6.
구민과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무설명회

CHAPTER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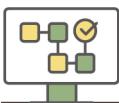
세금, 두려움이 아닌 전략이 되다

450명 구민과 함께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 현장

세무관리과 세무행정팀

김종현 세무행정팀장, 김한필 주무관

성과요약서

강남구, 세금 부담 확 줄이는 절세특강, 올해도 열었다**추진 개요****☑ 배경 및 목적**

- ▶ 부동산 가격 상승 및 복잡한 세법 개정으로 인한 구민들의 상속·증여세 부담 및 불안감 가중
- ▶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제공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 추진 전략

- ▶ 국내 최고의 상속·증여세 권위자(김호용 세무사)를 초빙하여 강의 전문성 확보
- ▶ 이론 위주의 강의를 탈피하고 실제 사례 및 Q&A 중심의 실무 특강 운영

**추진 성과****☑ 450여 명 구민 대상 맞춤형 절세 전략 제공**

- ▶ 사전 예약 조기 마감 및 현장 좌석 만석 등 구민들의 뜨거운 관심 확인

☑ 만족도 조사 결과 96%가 '매우 만족' 응답, 실질적인 세무 고민 해결 기여**기대 효과****☑ 복잡한 세금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법 제시로 구민들의 심리적 부담 완화****☑ 선제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얹울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사전 예방**

01

세금, 두려움이 아닌 전략이 되다**- 450명 구민과 함께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 현장 -**

프롤로그: 불확실성이라는 비용

최근 급격한 부동산 가치 상승과 복잡해진 세법으로 인해 강남구민들에게 상속세와 증여세는 가장 큰 재무적 리스크로 떠올랐습니다. “세금 때문에 자산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게 만들었고, 이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강남구 세무관리과는 이러한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자리를 기획했습니다.

제1막: 450석을 가득 채운 열기

2025년 9월 16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450명의 구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전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 속에 시작된 이날 특강의 강연자는 상속·증여세 분야의 권위자인 김호용 세무사였습니다. 강의의 핵심은 ‘철저한 사전 계획’이었습니다. 김호용 세무사는 “세금을 줄이는 것은 불법적인 탈세가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미리 준비하여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임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꼬마빌딩 감정평가,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강남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무 사례가 나올 때마다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며 높은 몰입도를 보였습니다.

제2막: 명쾌한 해법, 걷히는 안개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은 구민들이 가진 구체적인 고민을 해결하는 실전의 장이었습니다.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 문제”, “해외 거주 자녀 증여” 등 인터넷 검색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 전문가의 명쾌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참석한 한 구민은 “그동안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얻었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참석

자의 96%가 강의 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에필로그: 지식이 자산을 지킨다

이번 특강은 세무 행정이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시의적절하고 전문적인 세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민들이 세금에 대한 막막함을 걷어내고 든든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아는 만큼 자산은 안전해집니다.



PART 6.
구민과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무설명회

CHAPTER

02

파트너, 그 이상의 세무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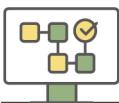
전국 최초, 기업의 성장을 돋는
세무설명회 개최

재산세과 법인조사팀

임현희 법인조사팀장, 이경일 주무관, 김성미 주무관, 이우성 주무관,
송두영 주무관, 김정모 주무관, 정혜린 주무관

성과요약서

강남구, 전국 첫 중소·창업기업 세무설명회 개최... “규제보다 성장지원”

**추진 개요****☑ 배경 및 목적**

- ▶ 중소·창업기업이 복잡한 지방세법(종과세·감면·비과세 등)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자발적 탈세 및 가산세 추징 사례 빈발
- ▶ 사후 적발 위주의 세무조사 관행에서 벗어나, 사전 안내와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는 지원 행정으로 전환

☑ 추진 전략

- ▶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업 대상 맞춤형 세무 설명회를 기획하여 ‘기업 성장의 동반자’로서의 행정 역할 정립
- ▶ 한국무역협회(장소), 한국세무사회(상담), 신한은행(금융)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세무·금융·경영을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 제공

**추진 성과****☑ 기업 맞춤형 세무 솔루션 제공 및 민관 협력 모델 구축**

- ☑ 관내 법인 임직원 130여 명 참석, 창업벤처기업 감면 및 종과세 예외 규정 등 실무 필수 정보 전달(행정안전부 서원주 팀장 강연)
- ☑ ‘찾아가는 세무상담’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1:1 심층 컨설팅 및 기업 대출 상담 병행

**기대 효과****☑ 기업 하기 좋은 세정 환경 조성**

- ▶ 기업의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 예방으로 경영 안정성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강압적 과세 관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적극 행정의 우수 사례 확산

02

파트너, 그 이상의 세무행정

- 전국 최초, 기업의 성장을 돋는 세무설명회 개최 -

프롤로그: 세금,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다

강남구는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요람입니다. 수많은 혁신 기업이 테헤란로에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이 청년 기업가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좌절하곤 합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나 ‘법인 설립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 중과세’ 같은 지방세 규정은 전문적인 세무팀이 없는 스타트업에게는 지뢰밭과 같습니다. 투자를 받아 지분율이 변동되거나, 사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몰라 수억 원의 가산세를 맞고 폐업 위기에 몰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강남구 재산세과 법인조사팀은 그동안 수많은 기업을 조사하며 이런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몰랐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몰라서 추징당하는 일은 없게 해



야 하지 않을까?” 사후에 잘못을 찾아내는 ‘규제자’에서, 사전에 위험을 알려주는 ‘가이드’로 역할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세무설명회>는 그렇게 기획되었습니다.

제1막: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 모인 기업들

2025년 10월 31일, 삼성동 코엑스 2층 스타트업 브랜치. 평소 투자 설명회(IR)가 열리던 이곳이 오늘은 세금 공부를 하러 온 기업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130여 명의 법인 대표와 실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설명회의 핵심은 철저한 ‘실무’였습니다. 법인조사팀장과 실무 주무관들이 직접 강단에 섰습니다. 그들은 교과서적인 이론 대신, 그동안 세무조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었던 추징 사례들을 가감 없이 공유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를 감면받지만,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추징됩니다. 이 기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지분 변동이 일어날 때 과정주주 간주취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본세의 20%입니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바쁘게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세금 리스크가 구체적인 관리 항목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1부 -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세무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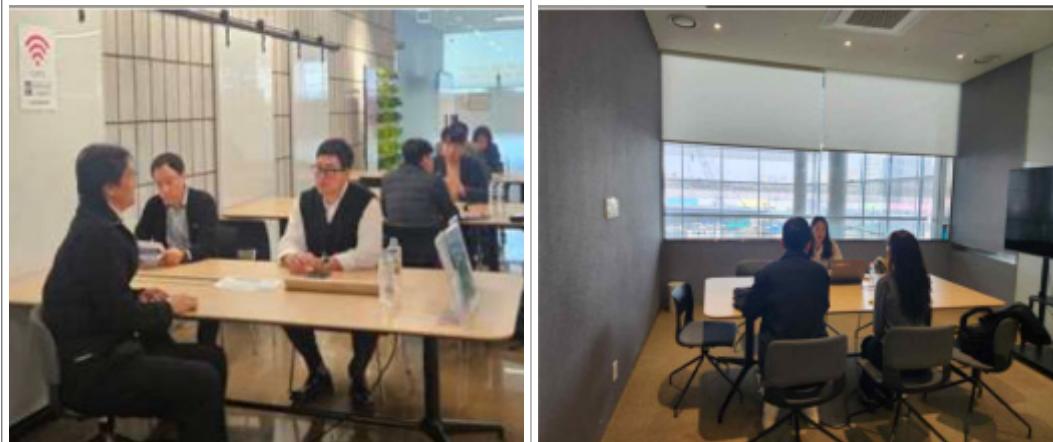


제2막: 세무를 넘어 금융까지, 원스톱 지원

이날 행사가 특별했던 또 다른 이유는 민관 협업이었습니다.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에 목마른 기업들을 위해 한국무역협회, 한국세무사회, 신한은행이 손을 잡았습니다. 강의장 밖 로비에는 1:1 상담 부스가 마련되었습니다. 재능기부 세무사들은 개별 기업의 복잡한 지분 구조를 분석해 주었고, 신한은행 전문가는 스타트업 전용 저금리 대출 상품을 안내했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상담을 마치고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겁부터 났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미리 조심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니 든든한 파트너를 얻은 기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지분 정리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2부 - 1:1 기업 맞춤형 세무·재무 컨설팅



에필로그: 감시자가 아닌 동반자로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이번 설명회는 지방세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세무조사’라는 칼을 휘두르기 전에 ‘세무 컨설팅’이라는 방패를 쥐여주는 것. 그래서 기업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것. 이것이 강남구가 지향하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규제 중심의 행정이 아닌,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원 행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강남구를 든든하게 지킬 것입니다.

PART 7

사전 안내를 통한 적극행정 서비스

- 01 3년 뒤의 폭탄을 막아라, 당신의 비서 알림톡**
- 잊기 쉬운 세금 의무, 스마트폰으로 미리 챙겨드립니다 -
재산세과 재산3팀
- 02 데이터의 퍼즐을 맞추다, 납세자의 실수를 돋다**
- 빅데이터 교차 검증을 통한 누락 세원 신고 지원기 -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1팀
- 03 아기 분유 값, 구청이 찾아드렸습니다**
- 데이터 장벽을 넘어 출산 가정에 세금을 돌려주다 -
재산세과 재산3팀

CHAPTER

01

3년 뒤의 폭탄을 막아라, 당신의 비서 알림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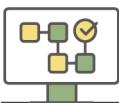
잊기 쉬운 세금 의무,
스마트폰으로 미리 챙겨드립니다

재산세과 재산3팀

김은영 재산3팀장, 김경미 주무관, 김종분 주무관, 박다을 주무관,
김성은 주무관, 하주원 주무관

성과요약서

강남구, '내 취득세 알림톡' 본격 시행...억울한 가산세 사전 차단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 취득세 신고는 대부분 법무사 등 대리인이 수행하여, 납세자 본인은 감면 유지 조건 등 사후 관리 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다수
- ▶ 일시적 2주택 처분, 실거주 의무 기간을 넘겨 예상치 못한 가산세 민원 빈발
- ▶ 신고 후 잊기 쉬운 의무 사항을 적기(골든타임)에 안내하는 시스템 필요

▣ 추진 내용

- ▶ 사업명: 서울시 최초 미리 알려주는 내 취득세 알림톡
- ▶ 대상: 2025년 상반기 취득세 신고 건 중 안내가 필요한 891건
- ▶ 방법: 신고기한 또는 유예기간 만료 전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 발송



추진 성과

▣ 유형별 맞춤형 사전 안내 실시

- ▶ 일시적 2주택자: 종전 주택 매도 기한 안내 및 종과세 유예 조건 상기
- ▶ 생애 최초 감면자: 3개월 내 전입 및 3년 실거주 의무 안내
- ▶ 상속 취득자: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 기한 안내

▣ 선제적 안내를 통한 납세자 불이익 예방

- ▶ 감면 요건 미충족 예상자에 대한 자진 수정 신고 안내로 가산세 부담 경감
- ▶ 무상취득 시가인정액 수정신고 안내(128건) 등 복잡한 과세표준 산정 지원
- ▶ 서울시 최초 시행으로 적극 행정의 우수 모델 제시



기대 효과

▣ 신고 후 방치되던 사각지대를 알림톡이라는 친숙한 매체로 해소

▣ 선제적 세무행정으로써 신뢰도 제고 및 불필요한 조세 저항 예방



01

3년 뒤의 폭탄을 막아라, 당신의 비서 알림톡**- 잊기 쉬운 세금 의무, 스마트폰으로 미리 챙겨드립니다 -**

프롤로그: 어느 날 날아온 세금 고지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는 날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법무사에게 일임하여 취득세 신고를 마치곤 하죠.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3년 안에 옛날 집을 팔아야 한다거나, 생애 최초 감면을 받으려면 3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들. 법무사님이 설명해 주셨겠지만, 이삿짐을 나르고 새집에 적응하다 보면 까맣게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2~3년 뒤, 갑자기 구청에서 가산세까지 붙은 수천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아차, 깜빡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도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강남구 재산세과는 이런 안타까운 비극을 막고 싶었습니다. 납세자가 잊어버릴 때쯤, 우리가 비서처럼 미리 알려주면 어떨까요?

제1막: 띵동, 강남구청입니다

2025년 8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상반기에 취득세를 신고한 구민 중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891명을 추렸습니다.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은 분, 생애 최초 감면을 받은 분, 그리고 상속을 받았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띵동! 스마트폰 화면에 강남구청 알림톡이 떴습니다. [일시적 2주택 중과세 유예 안내] 고객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하실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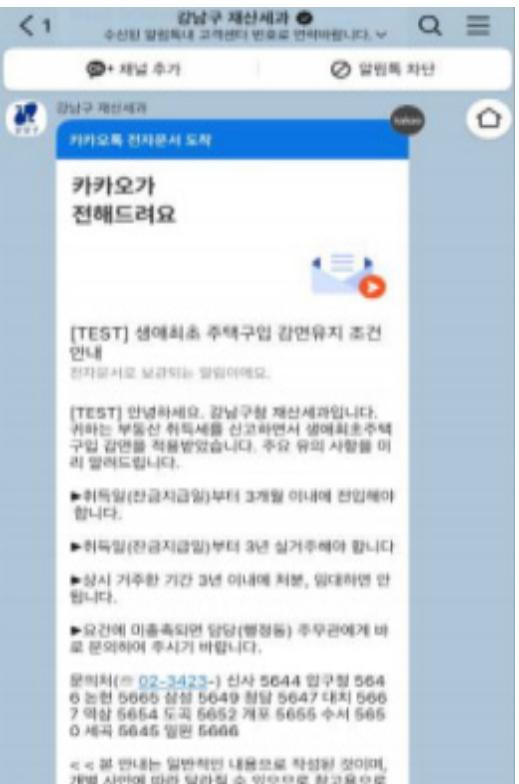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맞다, 집 내놓는 걸 깜빡하고 있었네! 전입신고를 바로 해야 하는 줄 몰랐는데, 알려줘서 고마워요. 단순한 안내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납세자의 재산을 지켜주는 골든타임 경보였습니다.

제2막: 128명의 실수를 예방하다

알림톡의 효과는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 금액을 잘못 알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알림톡을 통해 128건의 과소 신고 의심 사례를 안내했고,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만약 그냥 두었다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냈어야 했을 일입니다.

에필로그: 따뜻한 귓속말

세금 행정이라고 하면 보통 돈을 내라는 고지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강남구의 알림톡은 돈을 아끼게 해주는 기분 좋은 잔소리입니다. 누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가 뼈아픈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강남구 재산세과는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꼼꼼한 비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p>【TEST】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증과세 유예 안내 전자문서로 보관되는 알림이에요.</p> <p>【TEST】 안녕하세요. 강남구청 재산세과입니다. 귀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일시적 2주택 기본세율로 신고하였습니다. 주요 유의 사항을 마리 말려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주택 매도기한은 취득일로부터 3년입니다. ▶ 법정 매도기한이 지난면 달호 증과세 유예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한 전까지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행정등) 주무관에게 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문의처(☏ 02-3423-1) 신사 5644 암구정 5646 논현 5663 삼성 5648 청담 5647 대치 5664 4 역삼 5653 도곡 5652 개포 5644 수서 5650 세곡 5645 일원 5666</p> <p><< 본 안내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p>	 <p>【TEST】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전자문서로 보관되는 알림이에요.</p> <p>【TEST】 안녕하세요. 강남구청 재산세과입니다. 취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생애최초주택 구입 감면을 적용받았습니다. 주요 유의 사항을 마리 말려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잔금지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 취득일(잔금지급일)부터 3년 살거주해야 합니다. ▶ 상시 거주한 기간 3년 이내에 처분, 임대하면 안 됩니다. ▶ 요건에 미충족되면 당첨(행정등) 주무관에게 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문의처(☏ 02-3423-1) 신사 5644 암구정 5646 논현 5663 삼성 5649 청담 5647 대치 5667 역삼 5654 도곡 5652 개포 5655 수서 5650 세곡 5645 일원 5666</p> <p><< 본 안내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p>

CHAPTER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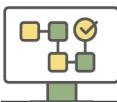
데이터의 퍼즐을 맞추다, 납세자의 실수를 돋다

빅데이터 교차 검증을 통한 누락
세원 신고 지원기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1팀

서복순 지방소득세1팀장, 김택중 주무관, 김정배 주무관, 변예원 주무관,
문원준 주무관, 김홍진 주무관

성과요약서

강남구,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전 안내 서비스' 전국 첫 시행**추진 개요****☑ 배경 및 목적**

- ▶ 개별 세목 위주의 징수 관행을 벗어나, 유관 기관 빅데이터를 연계한 교차 검증 필요
- ▶ 단순 착오나 법령 미숙지로 인한 누락 세원을 찾아내되, 과세 예고 전 수정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가산세 부담 완화
- ▶ 신고 누락을 사전에 바로잡아주는 신고 지원 서비스 도입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

☑ 추진 전략

- ▶ 데이터 연계: 건강보험공단(급여 자료), 국세청(소득 자료) 등 공공 빅데이터와 지방세(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료 매칭
- ▶ 교차 검증: 주민세(종업원분)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간의 과세표준 차이 분석을 통한 안분 신고 오류 추출
- ▶ 선제적 안내: 과세 예고 통지 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발적인 수정신고 유도

**추진 성과****☑ 세목 연계형 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 발굴**

- ▶ 주민세(종업원분): 건강보험공단 급여 자료와 대사. 535건, 5억 9천만 원 발굴
-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 연면적 및 종업원 수 안분 착오 등 31건, 17억 8천만 원 발굴

☑ 납세자 친화적 신고 지원 서비스 구현

- ▶ 무조건적인 추징이 아닌 사전 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 제공
- ▶ 가산세 감면 혜택 안내 및 신고 절차 지원으로 납세 협력 비용 절감 및 민원 최소화

**기대 효과****☑ 칸막이 행정을 타파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세원 관리 체계 구축****☑ 지원 위주의 행정으로 세입 증대와 납세자 권익 보호 동시 달성**

02

데이터의 퍼즐을 맞추다, 납세자의 실수를 돋다

- 빅데이터 교차 검증을 통한 누락 세원 신고 지원기 -

프롤로그: 복잡한 세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세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세청에 법인세를 내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또 내야 하고, 직원이 늘어나면 주민세 종업원분도 챙겨야 합니다. 특히 본점과 지점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기업의 경우, 세금을 각 지자체에 어떻게 나눠서(안분) 내야 할지 계산하는 것만으로도 골치가 아픕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계산 착오나 담당자의 실수로 세금을 덜 내거나, 과세지를 착오하여 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즉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구 지방소득세과는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추징하기보다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류를 먼저 찾아내고 기업이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

제1막: 흩어진 조각을 모으다

2025년 3월, 우리는 흩어져 있던 데이터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급여 자료, 국세청의 소득 자료, 그리고 우리 구청의 지방세 신고 자료. 이 거대한 공공 빅데이터를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정밀하게 대조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지 않던 틈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A 기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인건비는 100억 원인데, 구청에 신고한 주민세 과표는 8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B 기업은 강남구와 타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데, 직원 수와 면적 비율을 잘못 계산하여 강남구에 내야 할 세금을 덜 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찾아낸 566건의 의심 사례들을 추렸습니다. 과거 같으면 바로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냈겠지만, 이번에는 접근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고 지원 서비스라고 불렀습니다.

제2막: 17억 원의 오류를 바로잡다

우리는 해당 기업들에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귀사의 신고 내역과 공공 데이터 간에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수정 신고를 하시면 가산 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한 중견기업 회계 담당자는 전화를 걸어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잘못돼 안분 계산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로 나왔으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뻔했는데, 미리 알려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는 즉시 수정 신고를 했고, 본세만 납부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C 법인은 임대 사업장을 안분 내역에 잘못 포함 시켜 세금을 낼 뻔했으나, 우리의 교차 검증 덕분에 오류를 발견하고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31개 법인이 착오를 시정했고, 그 금액만 무려 17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역시 535건의 오류를 바로잡아 5억 9천만 원의 세원을 확보했습니다.

에필로그: 감시자가 아닌 조력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거둔 23억 7천만 원이라는 성과는 단순한 징수 실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납세자의 실수를 탓하기 전에, 행정이 가진 데이터 능력으로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증거입니다. 세금 행정이 차가운 감시자가 아니라, 복잡한 세무 처리를 돋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는 빅데이터라는 렌즈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CHAPTER

03

아기 분유 값, 구청이 찾아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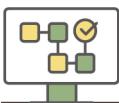
데이터 장벽을 넘어 출산 가정에
세금을 돌려주다

재산세과 재산3팀

김은영 재산3팀장, 김경미 주무관, 김종분 주무관, 박다을 주무관,
김성은 주무관, 하주원 주무관

성과요약서

출산 가정 놓칠 뻔한 감면 혜택, 강남구가 먼저 찾아 2,700만원 환급

**추진 개요****☑ 배경 및 문제점**

- ▶ 2024년 신설된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500만 원 한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사례 발생
- ▶ 출산 정보(가족관계)와 과세 정보(재산세과)가 단절되어 있어,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구청에서도 확인 불가
- ▶ 생애 최초 주택 감면(200만 원 한도)과 중복 대상일 경우, 더 혜택이 큰 출산 감면을 선택해야 함에도 정보 부족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 발생

☑ 추진 내용

- ▶ 사업명: 출산 정보 기반 취득세 감면 누락자 선제 발굴 및 환급
- ▶ 전략: 보육지원과(출산 정보)와 재산세과(과세 정보) 간의 칸막이 제거 및 데이터 매칭
- ▶ 대상: 2024년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주택을 취득했으나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추진 성과****☑ 감면 사각지대 발굴 및 환급: 총 8건, 2,700만 원**

- ▶ 감면 미신청자 발굴: 출산 후 5년 내 주택 취득 등 요건을 충족했으나 감면을 놓친 3건 발굴 (1,500만 원 환급 안내)
- ▶ 과소 신청자 구제: 생애 최초 감면(200만 원)만 받은 납세자에게 출산 감면(500만 원)과의 차액 추가 환급 안내 (5건, 1,200만 원)

☑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

- ▶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에 취득세 감면 검토 항목 추가 건의
- ▶ 보건소 모유 수유 클리닉 등 출산 부모 접점 장소에 안내문 비치

**시사점**

- ☑ 부서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물어 납세자가 모르고 지나친 권리를 행정이 먼저 찾아줌**
- ☑ 저출생 시대, 아이를 낳은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돌려주는 따뜻한 세정 실현**



03

아기 분유 값, 구청이 찾아드렸습니다

- 데이터 장벽을 넘어 출산 가정에 세금을 돌려주다 -

프롤로그: 200만 원과 500만 원의 차이

2024년부터 아이를 낳은 부모가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깎아주는 좋은 제도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육아에 지쳐서인지 이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경우는 생애 최초 주택 감면을 받은 분들입니다. 생애 최초는 최대 200만 원까지만 감면되는데, 출산 감면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다 된다면 당연히 출산 감면을 선택해야 300만 원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법무사가 신청해 주는 대로 200만 원만 감면받고는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구청에서도 납세자가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출산 사실을 알 길이 없어 그냥 지나치기 일쑤였습니다. 강남구 재산세과는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 구청 안에 출산 기록도 있고 주택 취득 기록도 있는데, 이걸 맞춰보면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제1막: 부서의 벽을 넘다

생각은 좋았지만 현실은 벽이 높았습니다. 출산 정보는 보육지원과에, 세금 정보는 재산세과에 있었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서로 자료를 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출생 극복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부서 간 협의를 거듭했고, 마침내 데이터를 매칭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2025년 12월, 우리는 두 데이터를 겹쳐보았습니다. 그러자 보물찾기처럼 숨어있던 이름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이를 낳고 집을 샀는데 세금을 다 낸 사람, 더 받을 수 있는데 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8가구. 금액으로는 2,700만 원이었습니다.

제2막: 여보, 구청에서 돈 준대!

우리는 즉시 환급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안내를 받은 한 아기 아빠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더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말 제가 3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요? 이미 신고가 끝난 지 한참 됐는데요? 네, 선생님. 출산 감면 대상이신데 생애 최초로만 받으셔서 차액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내를 부르는 들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구청에서 우리 돈 더 준대! 아기 침대 바꿀 수 있겠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가 힘들게 데이터를 맞춘 보람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쳤을 돈이지만,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 가정에는 너무나 소중한 응원금이 되었을 테니까요.

에필로그: 당연한 권리를 찾아서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아예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출산 신고를 할 때 취득세 감면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건소와 협력해 예비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몰라서 못 챙기는 권리가 없도록, 강남구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벽을 허물고 구민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강남구의 진심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감면 안내문		개정 후 양식																																														
안내문(안)		신청 구분																																														
출산, 양육 가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실에 감사드립니다. ○ 출산 양육 가정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감면대상에 해당할 경우 감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주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주택 소재지</td> <td style="padding: 2px;">취득일자</td> <td style="padding: 2px;">감면세목</td> <td style="padding: 2px;">비고</td> </tr> <tr> <td style="height: 20px;"></td> <td style="height: 20px;"></td> <td style="height: 20px;"></td> <td style="height: 20px;"></td> </tr> </table>		주택 소재지	취득일자	감면세목	비고																																											
주택 소재지	취득일자	감면세목	비고																																													
◆ 감면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85%;">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대상자</td> <td>2024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감면요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취득하는 1세대 1주택 •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의 주택 • 2024.1.1. 이후 부동산 취득 • 출산 1년 전부터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 3년간 상시 거주 등 </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취득종류</td> <td>매매, 상속, 증여, 신축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감 면 액</td> <td>취득세 500만원 한도</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근거법령</td> <td>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의3, 17조의 4</td> </tr> </tbody> </table>		구분	내 용	대상자	2024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	감면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취득하는 1세대 1주택 •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의 주택 • 2024.1.1. 이후 부동산 취득 • 출산 1년 전부터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 3년간 상시 거주 등 	취득종류	매매, 상속, 증여, 신축 등	감 면 액	취득세 500만원 한도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의3, 17조의 4																																			
구분	내 용																																															
대상자	2024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																																															
감면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취득하는 1세대 1주택 •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의 주택 • 2024.1.1. 이후 부동산 취득 • 출산 1년 전부터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 3년간 상시 거주 등 																																															
취득종류	매매, 상속, 증여, 신축 등																																															
감 면 액	취득세 500만원 한도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의3, 17조의 4																																															
◆ 유의사항 <p>자녀와 상시 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시 추징됩니다.</p>																																																
◆ 문의처 : 강남구청 재산세과(부동산 소재지 행정동 담당)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서비스명</th> <th colspan="3" style="width: 85%;">신청 구분</th> </tr> <tr> <th></th> <th>구 분</th> <th>성 명</th> <th>출생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vertical-align: top; text-align: center;">출산양육지원금</td> <td>첫째 자녀</td> <td>국내(), 국외()</td> <td>직장(), 직업(), 기타()</td> </tr> <tr> <td>둘째 자녀</td> <td>국내(), 국외()</td> <td>직장(), 직업(), 기타()</td> </tr> <tr> <td>셋째 자녀</td> <td>국내(), 국외()</td> <td>직장(), 직업(), 기타()</td> </tr> <tr> <td>넷째 자녀 이상</td> <td>국내(), 국외()</td> <td>직장(), 직업(), 기타()</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td><td colspan="2"></td></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성 명</td><td>거주기간</td><td>년 월 일 ~ 년 월 일</td></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자치단체 서비스(강남구)</td><td colspan="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결제한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 1회 신청방법 : 온라인(경복24)/보건소 1층 센터 방문 문 의 : 보건소 1층 사랑방건강센터 의료비지원실(3423-7230, 7261) </td></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td><td colspan="2"></td></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모유수유 활성화 지원</td><td colspan="2"> 지원내용 : 1:1 모유수유 클리닉 지도 교실 운영 및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 1:1 모유수유 클리닉 : 보건소 홈페이지 통합예약 문 의 : 유축기 대여 : 예설로 서류 송부, 보건소 현장 접수 문 의 : 보건소 1층 사랑방건강센터 의료비지원실(3423-7230, 7261) </td></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취득세 감면경토</td><td colspan="2"> 지원내용 :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취득하는 1세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500만원 한도 감면 문 의 :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출산 1년 전부터 담당) → 2024년 이후 취득, 거주 등 요건 신청방법 : 강남구청 재산세과에 문의(부동산소재지 행정동 담당자에게 문의) </td></tr> </tbody> </table>		서비스명	신청 구분				구 분	성 명	출생 지역	출산양육지원금	첫째 자녀	국내(), 국외()	직장(), 직업(), 기타()	둘째 자녀	국내(), 국외()	직장(), 직업(), 기타()	셋째 자녀	국내(), 국외()	직장(), 직업(), 기타()	넷째 자녀 이상	국내(), 국외()	직장(), 직업(), 기타()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성 명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 서비스(강남구)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결제한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 1회 신청방법 : 온라인(경복24)/보건소 1층 센터 방문 문 의 : 보건소 1층 사랑방건강센터 의료비지원실(3423-7230, 7261)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모유수유 활성화 지원		지원내용 : 1:1 모유수유 클리닉 지도 교실 운영 및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 1:1 모유수유 클리닉 : 보건소 홈페이지 통합예약 문 의 : 유축기 대여 : 예설로 서류 송부, 보건소 현장 접수 문 의 : 보건소 1층 사랑방건강센터 의료비지원실(3423-7230, 7261)		취득세 감면경토		지원내용 :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취득하는 1세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500만원 한도 감면 문 의 :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출산 1년 전부터 담당) → 2024년 이후 취득, 거주 등 요건 신청방법 : 강남구청 재산세과에 문의(부동산소재지 행정동 담당자에게 문의)	
서비스명	신청 구분																																															
	구 분	성 명	출생 지역																																													
출산양육지원금	첫째 자녀	국내(), 국외()	직장(), 직업(), 기타()																																													
	둘째 자녀	국내(), 국외()	직장(), 직업(), 기타()																																													
	셋째 자녀	국내(), 국외()	직장(), 직업(), 기타()																																													
	넷째 자녀 이상	국내(), 국외()	직장(), 직업(), 기타()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성 명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 서비스(강남구)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결제한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 1회 신청방법 : 온라인(경복24)/보건소 1층 센터 방문 문 의 : 보건소 1층 사랑방건강센터 의료비지원실(3423-7230, 7261)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모유수유 활성화 지원		지원내용 : 1:1 모유수유 클리닉 지도 교실 운영 및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 1:1 모유수유 클리닉 : 보건소 홈페이지 통합예약 문 의 : 유축기 대여 : 예설로 서류 송부, 보건소 현장 접수 문 의 : 보건소 1층 사랑방건강센터 의료비지원실(3423-7230, 7261)																																														
취득세 감면경토		지원내용 :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취득하는 1세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500만원 한도 감면 문 의 :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출산 1년 전부터 담당) → 2024년 이후 취득, 거주 등 요건 신청방법 : 강남구청 재산세과에 문의(부동산소재지 행정동 담당자에게 문의)																																														

PART 8

강남 세정의 대외 수상 및 글로벌 위상

- 01 이론과 현장을 모두 석권하다
 - 2025년 행정안전부 장관상 2관왕 달성의 기록 -
재산세과 법인조사팀
- 02 세계가 주목한 K-세정의 표준, 강남
 - 세계은행(World Bank) 초청 글로벌 지식공유 세미나 현장 -
세무관리과 세무행정팀
- 03 엑셀 지옥에서 디지털 트원으로
 - 전국 최초 API 기반 스마트 등록면허세 시스템 구축기 -
지방소득세과 세입관리팀

CHAPTER

01

이론과 현장을 모두 석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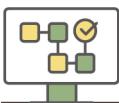
2025년 행정안전부 장관상 2관왕
달성의 기록

재산세과 법인조사팀

임현희 법인조사팀장, 이경일 주무관, 김성미 주무관, 이우성 주무관,
송두영 주무관, 김정모 주무관, 정혜린 주무관

성과요약서

강남구, '납세자 중심 혁신 세무행정'으로 행안부 장관상 2관왕

**추진 개요****☑ 배경 및 목적**

- ▶ 경기 침체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 및 구민들의 세무 상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마을세무사의 한정된 예산 범위를 넘어서는 대응책 필요
- ▶ 기존의 규제와 징수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파트너로서의 패러다임 전환 시급

☑ 추진 전략

- ▶ 예산 투입 없는 '민관 협력(ESG)' 기반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모델 구축으로 지속 가능성 확보
- ▶ 전국 최초 중소기업 맞춤형 세무설명회 등 기존 관행을 깨는 창의적 시책 발굴

**추진 성과****☑ 2025년 지방세 납세자 권리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 ▶ 발표 주제: 예산은 없어도 방법은 있다!
 - 구민의 삶 속으로 들어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
- ▶ 주요 성과: 예산 0원으로 9회 운영, 1,024명 무료 상담 실적 달성

☑ 2025년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 '우수상' 수상

- ▶ 발표 주제: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제도 및 AI 활성화 정책을 위한 규제개혁
 - 인텔리전트빌딩의 재산세 가산율 폐지 및 감면규정 신설 방안 -
- ▶ 연구 성과: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도 개선 및 연구에 활용

**기대 효과**

- ☑ '저비용 고효율' 납세자 보호 모델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확산
- ☑ 강남구 납세자 중심 세무 행정의 혁신성과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입증



01

이론과 현장을 모두 석권하다**- 2025년 행정안전부 장관상 2관왕 달성의 기록 -**

프롤로그: 최고의 행정을 증명하는 방법

2025년 한 해, 강남구 재산세과 법인조사팀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했지만, 과연 우리의 방향이 옳은지, 그리고 우리의 역량이 대한민국 지방세정을 선도할 수준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행정의 수준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국 지자체가 모여 실력을 겨루는 무대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세법 연구’라는 이론적 깊이를 증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납세자 권리 보호’라는 실무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11월, 강남구의 세무 공무원들은 충남 보령과 강원 강릉으로 각각 향했습니다. 우리의 혁신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제1막: 논리로 세상을 설득하다

첫 번째 승부처는 11월 17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2025년 지방세 발전포럼’이었습니다. 이곳은 전국의 세무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세 제도의 혁점을 찾고 개선안을 연구하여 발표하는, 이른바 ‘지방세 학술 올림픽’과도 같은 자리입니다.

강남구 대표단은 수개월간 준비한 연구 과제를 들고 연단에 섰습니다. 주제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현행 지방세법이 놓치고 있는 과세 사각지대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발표자 임현희 법인조사팀장은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낡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조세 정의가 바로 섭니다.”로 강조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상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된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AI의 흐름을 맞춰가기 위해 AI의 첨단에 위치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에 재산세 가산율 적용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을 신설한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강남구의 독창적인 연구 모델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실무와 이론이 적절한 조화를 이룬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창의성과 논리성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강남구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하며, 세무 행정의 ‘브레인’으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입증했습니다.



제2막: 진심이 담은 현장 솔루션

보령에서의 승전보가 들려온 지 다음날인 11월 19일, 이번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2025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열렸습니다. 앞선 포럼이 ‘이론’의 장이었다면, 이곳은 납세자를 위해 발로 뛴 ‘현장’의 기록을 평가받는 자리였습니다.

강남구 정혜린 주무관은 <예산은 없어도 방법은 있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는 어렵고 상담 수요는 폭증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 대신 ‘연결’을 택했습니다.” 발표 화면에는 강남구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와 ‘중소기업 세무설명회’의 현장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신한은행 등 민간 기관의 자원을 끌어들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1,024명의 구민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한 ‘비예산 민관 협력 모델’은 참석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규제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기업의 성장을 돋는 파트너로서 전국 최초의 기업 세무설명회를 개최한 사례는 지방세정 패러다임 전환의 모범 답안으로 꼽혔습니다. “강남구의 사례는 예산 부족을 겪는 모든 지자체가 따라야 할 표준입니다.” 심사위원장의

호평 속에 강남구는 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론에 이어 실무까지, 전국 무대를 완벽하게 석권한 순간이었습니다.



에필로그: 강남이 만들면 표준이 된다

2025년 11월, 강남구는 일주일 간격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2관왕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하나는 치열한 연구를 통해 법제도의 발전을 이끈 지성(知性)의 결과였고, 다른 하나는 발로 뛰며 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감성(感性)의 결실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상패는 강남구 세무 행정이 책상 위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구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세무 행정의 표준’이라는 자부심으로,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넓게 소통하는 행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CHAPTER

02

세계가 주목한 K-세정의 표준, 강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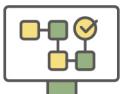
세계은행(World Bank) 초청
글로벌 지식공유 세미나 현장

세무관리과 세무행정팀

김종현 세무행정팀장, 백민지 주무관

성과요약서

해외 공무원들 “이게 디지털 행정이구나” …강남구 부동산·세무 시스템에 감탄



추진 개요

☑ 배경 및 목적

- ▶ 세계은행(World Bank) 주관으로 한국의 선진 행정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방한한 개발도상국 고위 공무원들에게 강남구의 우수 사례 전파
- ▶ 토지 관리부터 과세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세무 행정 프로세스를 공유하여 글로벌 리더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 추진 전략

- ▶ 세무관리과와 부동산정보과의 협업을 통해 ‘좌표 기반 디지털 지적도’와 ‘지방세 부과 시스템’의 연계 과정을 원스톱으로 시연
- ▶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6개국 공무원 및 세계은행 관계자 맞춤형 브리핑 및 현장 Q&A 진행



추진 성과

☑ 글로벌 지식공유 세미나 성공적 개최

- ▶ 일시 및 장소: 2025. 11. 18.(화), 강남구청 본관 1층 로비
- ▶ 참석자: 인도네시아, 라오스 차관급 공무원 및 세계은행 관계자 등 6개국 40여 명
- ▶ 주요 내용: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재산세 과세 시스템 등 강남구의 첨단 세정 노하우 전수



기대 효과

- ☑ 개발도상국의 도시 개발 및 세무 시스템 구축에 강남구의 모델이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
- ☑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스마트 글로벌 도시 강남’의 브랜드 가치 제고

02

세계가 주목한 K-세정의 표준, 강남**- 세계은행(World Bank) 초청 글로벌 지식공유 세미나 현장 -**

프롤로그: 강남으로 향하는 세계의 시선

2025년 11월, 강남구청에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세계은행(World Bank).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이 한국의 선진 행정을 배우러 오는데, 그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모델이 바로 ‘강남구의 부동산 및 세무 시스템’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견학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라오스의 차관급 인사를 포함해 중국, 필리핀, 피지 등 6개국에서 도시 개발과 토지 제도를 책임지는 핵심 관료 40여 명이 방문하는 ‘지식 공유의 장’이었습니다. 강남구 세무관리과와 부동산정보과는 즉시 협업 팀을 꾸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시스템이 세계 무대에서는 어떻게 비칠지, 우리의 ‘일상’이 그들에게 계는 ‘혁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제1막: 디지털로 연결된 땅과 세금

11월 18일 오후 3시, 강남구청 1층 로비는 각국의 언어와 통역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종현 세무행정팀장과 남호림 주무관은 대형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브리핑의 핵심은 ‘연결’과 ‘정확성’이었습니다. 강남구는 드론과 위성측량을 통해 구축한 ‘좌표 기반의 디지털 지적도’가 어떻게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고, 이것이 다시 오차 없는 ‘재산 세 부과’로 이어지는지 그 흐름을 시연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강남의 복잡한 빌딩 숲이 3 차원 디지털 지도로 구현되고, 클릭 한 번에 해당 토지의 세금 정보가 산출되는 순간,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IT 기술이 접목된 행정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이고 빠릅니다.” 세계은행의 토지 행정 전문가 스타마티스 (Stamatis) 씨는 연신 메모하며 강남구의 데이터 통합 역량에 주목했습니다.

제2막: 질문, 그리고 확신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토지 소유권 변동이 세금 시스템에 반영되는 데 며칠이나 걸립니까?” “과세 정보의 보안은 어떻게 유지합니까?” 참석자들은 특히 수기로 대장을 관리하는 자국의 현실과 비교하며, 강남구의 실시간 연동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종현 팀장은 시스템의 기술적 원리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검증 절차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고위 관료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도시 행정의 미래를 오늘 강남에서 보았다”며, 자국의 신수도 건설 프로젝트에 강남구의 모델을 적극 참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에필로그: 로컬이 곧 글로벌이다

이날의 세미나는 강남구의 세무 행정이 단지 국내 최고 수준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구축한 시스템과 노하우는 이제 개발도 상국의 투명한 토지 관리와 공정한 조세 제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행정이 가장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강남구는 오늘도 그 증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HAPTER

03

엑셀 지옥에서 디지털 트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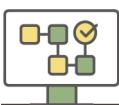
전국 최초 API 기반 스마트
등록면허세 시스템 구축기

지방소득세과 세입관리팀

홍기정 세입관리팀장, 강부용 주무관, 김대용 주무관, 민재숙 주무관,
백은지 주무관, 지승은 주무관, 김다윤 주무관

성과요약서

강남구, 전국 최초 등록면허세 처리에 'AI+지도' 접목 …업무 효율 10배↑

**추진 개요****☑ 배경 및 목적**

- ▶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인 인허가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 수기 입력 방식에 의존하여 자료 불일치 및 민원 발생 빈번
- ▶ 공공데이터(Open API) 기술을 활용, 인허가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자동 수집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하여 세무 행정의 정확도와 효율성 극대화

☑ 추진 전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년 디지털서비스 이용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 국비 8,316만 원 전액을 확보하여 비예산으로 시스템 구축
- ▶ 민간 클라우드(SaaS) 기반의 'The Smart한 등록면허세 시스템'을 개발하여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 제시

**추진 성과****☑ 대외 기관 수상 및 인증**

- ▶ 2025년 디지털서비스 이용확산 우수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 ▶ 서울시 제4회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 '분석활용 분야 우수상' 수상

☑ 행정 효율성 및 신뢰도 혁신

- ▶ 인허가 데이터 수집 효율 10.92배 향상 및 자료 처리 시간의 획기적 단축
- ▶ 세무서 폐업 정보와 인허가 대장 간의 자동 대사를 통해 '유령 사업장' 정보 불일치 해소 및 고지서 송달 오류 감소

**기대 효과**

- ☑ '업무 대시보드(To-Do List)' 및 '지도 기반 시각화' 기능을 통해 직관적이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 실현**
- ☑ 세무 부서와 인허가 부서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 생태계 조성**



03

엑셀 지옥에서 디지털 트원으로

- 전국 최초 API 기반 스마트 등록면허세 시스템 구축기 -

프롤로그: 10월의 엑셀 지옥

매년 가을이 되면 강남구청 지방소득세과 사무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를 앞두고, 관내 195종에 달하는 인허가 자료를 정비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강남구의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약 16만 건. 서울시 자치구 중 단연 최대 규모입니다.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담당자들은 각 인허가 부서에서 공문으로 날아오는 수천 건의 엑셀 파일을 일일이 열어보고, 세무 시스템에 수기로 입력해야 했습니다.

“팀장님, 식품위생과에서 온 폐업 명단이랑 국세청 사업자 등록 상태가 안 맞습니다. 이 식당은 구청에는 영업 중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서에는 폐업 신고가 되어 있어요.” 이른바 ‘유령 사업장’입니다. 실제로는 문을 닫았는데 인허가 대장이 정리되지 않아 세금 고지서가 날아가는 경우, 민원인의 항의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장사 안 한 지가 언젠데 세금을 내라고 합니까?” 반복되는 데이터 불일치, 수기 입력으로 인한 오타, 그리고 쏟아지는 민원 전화. 우리는 이것을 ‘10월의 엑셀 지옥’이라 불렀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야근을 더 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제1막: 승부수, 국비를 따내다

2025년 1월, 세입관리팀은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알아서 흘러들어오게 할 수는 없을까?” 해답은 ‘공공데이터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에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개방한 인허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끌어와 우리 시스템에 자동으로 꽂아주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개발에는 예산이 필요했고,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신규 예산 편성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외부로 눈을 돌렸습니다. 마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 디지털 서비스 이용확산 지원사업’ 공고가 떴습니다. 경쟁률은 3대 1. 전국의 공공기관들이 저마다의 IT 기술을 뽐내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절박했습니다. 강남구의 복잡한 인허가 현황과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적나라하게 분석하고, 이를 클라우드(SaaS) 기반의 시스템으로 혁신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강남구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국비 8,316만 원 전액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구 예산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수억 원 가치의 시스템을 만들 기회를 얻어낸 것입니다.

제2막: 지도가 된 세금, 디지털 트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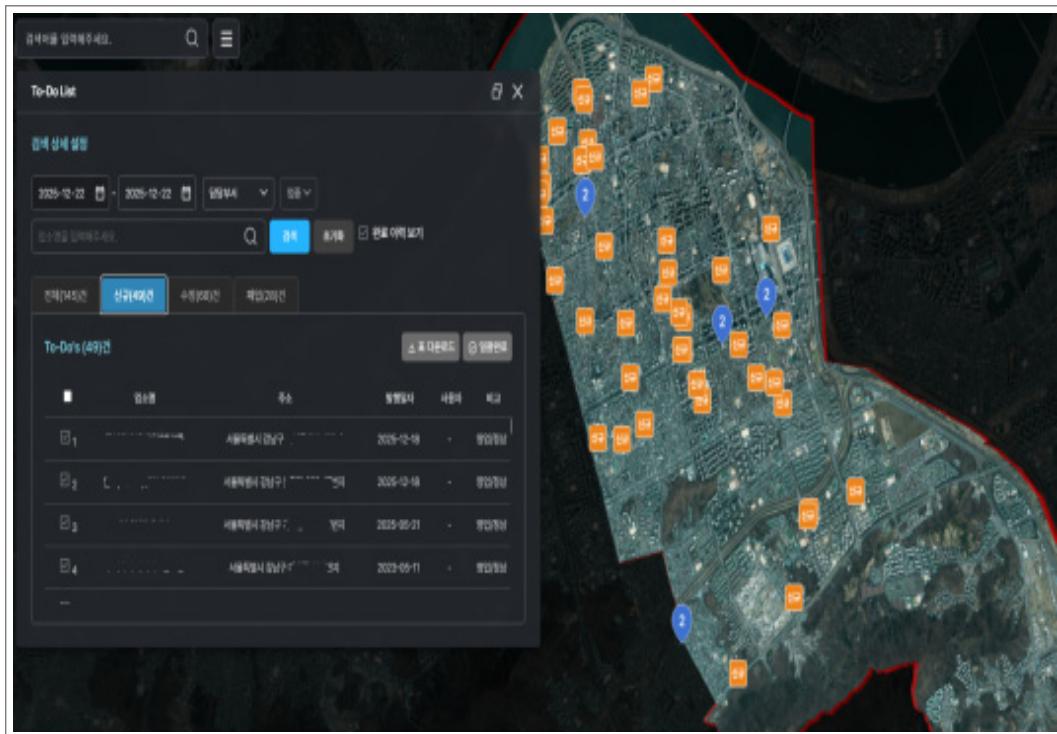
2025년 9월, 드디어 <The Smart한 등록면허세 시스템>의 베타 버전이 열렸습니다. 모니터를 켠 직원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각화’였습니다. 기존에는 텍스트와 숫자로만 존재하던 과세 자료들이, 강남구 지도 위에 점과 색깔로 표시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세무 행정입니다. “여기 빨간색 점들은 폐업 신고 된 곳이고, 파란색은 이번 달 신규 허가 난 곳입니다. 지도만 봐도 상권의 변동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시스템의 핵심 엔진은 ‘자동 동기화’였습니다. 식당 주인이 구청 위생과에 폐업 신고를 하면, 그 정보가 API를 타고 실시간으로 세무 부서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담당자가 공문을 기다릴 필요도, 엑셀을 대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업무 대시보드(To-Do List)’ 기능은 업무의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신규 허가: 400건 / 수정: 345건 / 처리 필요: 1,090건] 시스템에 접속하면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직관적으로 표시됩니다. 담당자는 그저 ‘승인’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복잡한 과세 자료 정비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받아온 결과, 데이터 수집 효율은 이전 대비 10.92배나 향상되었습니다.

제3막: 칸막이를 없애다

이 시스템의 진가는 ‘협업’에서 발휘되었습니다. 그동안 세무 부서는 국세청의 폐업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인허가 부서는 이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인허가 부서의 변동 사항이 세무 부서로 늦게 넘어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이 ‘정보의 시차’를 없애버렸습니다. 세무 부서가 확인한 국세청 폐업 정보를 시스템에 올리면, 위생과나 문화도시과 등 인허가 부서 담당자가 즉시 다운로드하여 자신들의 대장을 정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일일이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도 유령 사업장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 부서 직원들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부서 간의 보이지 않는 칸막 이를 기술이 허물어뜨린 순간이었습니다.



제4막: 장관상, 그리고 표준이 되다

2025년 11월 17일, 우리의 노력은 최고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평가에서 ‘장관상’ 수상 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경쟁률 8대 1을 뚫어 낸 쾌거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서울시 데이터 분석활용 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으며 겹 경사를 맞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강남구의 시스템이 가진 ‘확산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민간 클라우드(SaaS) 방식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별도의 복잡한 개발 과정 없이 구독하듯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강남구가 만든 시스템이 대한민국 지방세정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에필로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혁신



이제 강남구의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합니다. “왜 폐업했는데 고지서가 왔느냐”는 민원 전화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직원들은 단순 반복 업무에서 해방되어 더 가치 있는 세원 분석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조율하는 것. 그것이 강남구가 추구하는 ‘스마트 세무 행정’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엑셀 지옥을 넘어 디지털의 신세계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오로지 구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도구로 쓰일 것입니다. 강남의 혁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PART **9**

세무부서 직원화합 소통 강화

01 잠시 멈춤, 그리고 더 큰 도약

- 2025년 세무직 공무원 화합 워크숍, 양구에서의 1박 2일 -

강남 세무 가족 일동

PART 9.

세무부서 직원화합 소통 강화

CHAPTER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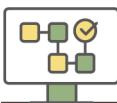
잠시 멈춤, 그리고 더 큰 도약

2025년 세무직 공무원 화합
워크숍, 양구에서의 1박 2일

강남 세무 가족 일동

성과요약서

2025 세무부서 직원화합 워크샵



추진 개요

☑ 배경 및 목적

- ▶ 복잡한 지방세 법령 적용 및 고질적인 악성 민원 등대로 인한 세무직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심화
- ▶ 나.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자연 속 힐링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조직 결속력을 다지고, 재충전을 통해 고품격 세무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함

☑ 추진 전략

- ▶ 강원도 양구군 광치자연휴양림의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림 치유' 및 '명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심리적 안정 도모
- ▶ '에어봉 릴레이' 등 팀 빌딩 활동을 통해 직급과 부서의 벽을 허물고 협업의 가치를 체득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기획



추진 성과

- ☑ 총 2회(1차: 4.10.~11. / 2차: 4.17.~18.)에 걸쳐 세무관리과 등 3개 과 직원 150명 참여
- ☑ 세무부서 직원 화합 및 사기 진작: 설문조사 결과 참여 직원의 93%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하여 높은 호응도와 스트레스 해소 효과 확인



기대 효과

- ☑ 직원 간 유대감 강화 및 소통 활성화로 활기찬 조직 문화 조성 및 행정업무 서비스 효율성 증대
- ☑ 직무 만족도 제고를 통해 구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능동적인 세무 행정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01

잠시 멈춤, 그리고 더 큰 도약**- 2025년 세무직 공무원 화합 워크숍, 양구에서의 1박 2일 -**

프롤로그: 숫자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다

세무 공무원의 책상은 언제나 ‘긴장’과 ‘책임’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됩니다. 하루에도 수천 건씩 쏟아지는 과세 자료를 정비하며 1원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원인들의 날 선 감정을 온전히 받아내야 하는 감정 노동은 직원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곤 합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건넬 수 있다.” 강남구는 이 명제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격무에 시달린 직원들이 사무실 밖에서 숨을 고르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다시 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절실했습니다. 2025년 4월, 우리는 빌딩 숲을 벗어나 청정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국토의 정중앙, 강원도 양구로 향했습니다.

제1막: 숲에서 찾은 침묵의 위로

4월 10일, 워크숍의 첫 일정은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안쪽에 숨겨진 비경, 두타연 트레킹이었습니다. 60여 년간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았던 이곳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평화로운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철조망 사이로 피어난 이름 모를 야생화와 맑은 계곡 물소리를 벗 삼아 흙길을 걸었습니다. ‘자뢰’ 표지판이 주는 묘한 긴장감 속에서, 직원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옥죄던 업무의 긴장을 내려놓고 자연의 위대함 앞에 겸허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방문한 박수근 미술관에서는 서민들의 소박한 일상을 화폭에 담아낸 화가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힘겨운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림 속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구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공직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되새기는 인문학적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파로호 위에 한반도 모양으로 조성된 한반도섬을 거닐며, 시원한 강바람에 묵은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탁 트인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제2막: 팀워크의 묘미를 배우다

저녁 식사 후 이어진 ‘레크리에이션’ 시간은 이번 워크숍의 백미였습니다. 직급과 나이, 소속 팀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가장 뜨거운 호응을 얻은 것은 ***‘에어봉 릴레이’***였습니다. 긴 에어봉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여러 명이 한 몸처럼 움직여 반환점을 돌아오는 이 경기는 혼자만 잘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나, 둘! 원발, 오른발!” 팀장님의 목이 터져라 외치는 구령에 맞춰 신입 주무관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음이 급해 스텝이 꼬일 때마다 서로의 어깨를 잡아주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넘어질 듯 위태로운 순간을 웃음으로 넘기며 결승선에 들어오는 순간, 직원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세무 행정 역시 혼자만의 독주가 아니라, 동료와 호흡을 맞추고 서로를 지탱해 줄 때 비로소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3막: 팀워크의 묘미를 배우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화채 그릇을 닮은 독특한 분지 지형인 양구 편치볼을 찾아 대자연의 신비를 감상했습니다. 이어 양구수목원의 울창한 숲길을 걸으며 폐부 깊숙이 피톤치드를들이마셨습니다. 숲이 주는 맑은 공기는 그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치유제였습니다. 여성의 마지막은 편안한 휴식 공간인 인필드에서의 티타임이었습니다. 딱딱한 회의 테이블이 아닌 감성적인 공간에서, 직원들은 업무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가족, 취미,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과장님께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라는 대화 속에 ‘상사’와 ‘부하’가 아닌 ‘동료’로서의 끈끈한 유대감이 짹텄습니다.

에필로그: 행복한 공무원이 만드는 친절한 강남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 효과는 강렬했습니다. 워크숍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여 직원의 93%가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동료들과 발을 맞추며 크게 웃었던 기억으로 다시 일할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구민을 향한 친절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였습니다. 양구에서 채워온 맑고 건강한 기운으로, 강남구 세무 공무원들은 이제 구민을 위해 다시 힘차게 뛸 준비를 마쳤습니다.



두타연



레크레이션

부록

Special Episode: 우리들의 품격

01 세무과 직원 칭찬합시다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02 독서감상문 수상작

지방소득세과

부록

Special Episode: 우리들의 품격

CHAPTER

01

세무과 직원 칭찬합니다

세무관리과

김정우 주무관

재산세과

김은영 재산3팀장, 민재숙 주무관, 한정연 주무관, 서재원 주무관, 황승원 주무관

지방소득세과

김효진 주무관

2025년 세무과 칭찬받은 직원

2025-02-17

To. 재산세과 민재숙 주무관님

자동차세 관련하여 통화중이었습니다.

총 2대의 차량을 소유 중이며 1대는 아버지, 1대는 제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대표 납세자가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다가, 최근 재산상 등록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산세과 민재숙 주무관님께 제가 오히려 화를 내며 따졌으나.. 제 잘못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친절히 응대해주시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From. 이○○

2025-05-22

To. 지방소득세과 김효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강남역 인근에 소재한 법인입니다.

최근에 강남구청 지방소득세과에서 등기우편이 하나 도착하여 확인을 해보니, 저희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몰라 감면혜택을 받고 있지 못했던 부분을 강남구청 김효진 주무관님 덕분에 확인하고, 환급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강남구에 있는 법인들도 날로 변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김효진 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From. 백○○

2025-07-22

To. 재산세과 서재원 주무관님

오늘은 강남구청에서 일처리해주신 구청주무관님에 칭찬 후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복잡한 건이고, 제가 미리 잘 알아보지 않아 번복하게 있어서, 애로를 드렸는데요
스트레스 꽤 받으셨을텐데 시종일관 침착하고 친절히 도와주셔서 일보는데 매우
마음편하고 신속히 진행되었습니다

강남구청이 친절하고 효율적인 조직이구나.. 고마움을 느껴 글 남기니

재산세과 서재원 주무관 칭찬하는 후기를 강남구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From. 염○○

2025-08-28

To. 재산세과 김은영 팀장님

안녕하세요. 태어나서 첨으로 민원아닌 민원을 넣어봅니다. 저희 딸이 스위스UN
으로 직장을 이직 하면서 1가구 단독세대로 인천에서 강남구 일원동 집으로 주소
를 옮겼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저희로서는 일단 주소를 옮기고 보름쯤 있다가 출
국을 혼자서 하는 과정에 법적인 절차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4년째 재산세 과세
에 1가구 2주택이 적용되어 항상 정정신청을 해야했고 나름쉽게 해결이 돼있었는
데 올해는 성동구청에서 법해석이 잘못되었다고 강남구청과는 다른이견을 고집했
습니다. 저는 그냥 받아들일 생각였는데 일원동 담당 팀장님이 여러번의 전화와 자
료를 체크해 주신 덕분에 성동구청에서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법이 멀리 있지 않다는것을 알게 해주신 팀장님을 구청장님이 대
신 칭찬해 주세요

From. 이○○

2025-06-30

To. 재산세과 한정연 주무관님

제가 실수로 취득세 착오 신고 후 해당금액을 납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정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빠른 시일 내에 담당자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칭찬의 말씀 드립니다.

From. 이○○

2025-09-10

To. 세무관리과 김정우 주무관님

저희 어머니와 같이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려 웠는데, 방법도 잘 모르고 여러군데에 관할구역이 흩어져 있어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담당자님께서 센스 있게 저희가 혗결음 하지 않아도 바로 처리가 되도록 잘 처리해 주시고 납부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괜한 힘 들이지 않고 쉽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From. 박○○

2025-10-15

To. 재산세과 황승원 주무관님

10월2일 바이크 번호판 등록으로 강남구청 1층 민원실로 방문을 했었는데 업무가 너무 복잡했는데 송세진 직원, 황성우 직원, 황승원 직원 3분이 너무 열심히 잘 응대를 해주셔서 고마워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From. 익명

부록

Special Episode: 우리들의 품격

CHAPTER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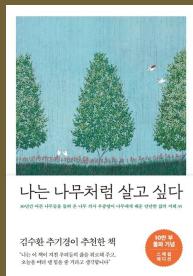
독서감상문 수상작

지방소득세과

홍유기 주무관, 이현영 주무관, 김다윤 주무관

독서감상문

- ▶ 도서명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 ▶ 저자 우종영
- ▶ 출판사 메이븐
- ▶ 출판연도 2021.2.8.



- ▶ 부서 지방소득세과
- ▶ 직급 세무7급
- ▶ 성명 홍유기

우리 구청 초입엔 오래된 목백합이 있다. 그 목백합 앞에서 신규 시절 C 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처음 공무원 됐을 때 이 목백합 아래에서 공직자의 꿈을 키웠어. ○○ 씨도 이 목백합 같은 공직 생활을 해나갔으면 해.”

당시엔 강남의 화려한 공간에서 값비싼 음식과 술을 사주시는 선배들을 따라다니기 바빠 그 말을 이해할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5년 차쯤 되어 업무적인 송사·증사·법률에 휘말렸을 때 도무지 해법이 떠오르지 않아 그 나무를 찾았고 그곳엔 팀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마치 말없이 기다리는 그 목백합처럼. 이후 수개월 간의 다툼 끝에 승소했고 다시 팀장님과 함께 나무를 찾았다. 마치 커다란 목백합처럼 내 그늘이 되어 준 것 같은 팀장님. 물론 나무의 존재와 팀장님의 격려가 그 짜임의 종지부를 찍은 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직 생활 중, 나아가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는 결정적 순간임은 틀림없었다.

매일 8시 50분의 업무 시작 방송과 동시에 송출되는 긴 한숨을 주체할 수 없다. 또 얼마나 많은 민원 전화에 시달리고 동료와의 불협화음을 겪어야 할까? 그 순간 L 팀장님께서 뱅갈고무나무의 잎을 다듬는 곳으로 시선이 갔다. 마치 선배가 후배를 다독인 것 같은 그 행위가 날 위로하는 듯했다.

“팀장님은 왜 나무를 키우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팀장님께선 여유 있게 반문하셨다. “○○ 씨도 나무를 키워 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야”

그리고 보면 민원인·동료와의 피할 수 없는 불편함 앞에서도 늘 침착함과 태연함을 유지하셨던 팀장님의

자태는 우연의 산물이 아닐지도 몰랐다. 점심을 먹고 나서 매번 커피숍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근처 숲으로 향했다. 어느새 난 나무 속을 걷기 시작하여 옆에 끈 책을 꺼내 음미했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어느 날 나무가 곁으로 왔고 삶을 가르쳐 주었으며 결국 저자의 나무처럼 살고 싶다고 다짐하게 되었다는 파노라마가 내게도 펼쳐지는 듯해 타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책은 단순히 나무의 특성을 열거한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 나무를 인생에 빗댄 저자의 잔잔하면서도 눈부신 철학이 스며있었다. 다 비슷해 보이는 나무들의 개성은 뚜렷했고 그것의 형성 과정과 사연이 인간의 삶과 참 닮아 보인다는 동질감이 들었다. 30년간 아픈 나무를 돌봐 온 이름도 생소한 ‘나무 의사’인 저자가 나무에 보인 정성과 땀, 눈물은 마치 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경외감이 그윽하게 밀려왔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내 인생에서 이어져 온 나무와의 인연을 떠오르면서 앞으로의 기대감도 더해졌다.

초등학생 시절 내성적이었던 난 늘 혼자였다. 가난이 이유였다. 늘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반찬을 싸 오는 나를 친구들이 탐탁지 않게 여긴 거였다.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가까이 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절망만 하고 있었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담임선생님께서 재배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기셨다. 학교의 나무를 돌보는 일이었는데 모과나무의 첫인상은 강렬했다. ‘이렇게 못생긴 열매를 달고 있는 나무는 얼마나 서글풀까?’ 하지만 선생님께선 미소를 지으셨다. “나무를 키우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처음에 관리 방법을 몰라 막연했을 때 이것저것 관련 서적을 찾아보며 나무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열정을 친구들이 지켜보며 하나둘 내 곁엔 ‘사람’이 자리 잡게 되었다. 참 묘한 순간이었다. 정말 선생님의 말씀처럼 친구들도 내 외형이(가난) 아닌 내면을 바라보게 된 것이었을까? 그때부터 난 사람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무와 함께하던 어느 순간 나무와 소통할 수 있게 된 저자의 환희가 이와 같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도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달콤하고 예쁜 꽃·열매를 바랐던 내 나무엔 모진 풍파로 메말라 가는 잎만 남게 되었다.

● 공직 입문 시기도 새삼스레 떠오른다. 당시 난 밤나무 같은 특성으로 누군가의 조언을 귓등으로 듣고 독불장군처럼 성미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래서 동료·민원인과의 마찰이 유난히 많았던 ‘공무원의 사춘기’ 시기였다. 어렵게 들어온 공직을 관두려고까지 했으니,

저자의 표현대로 산에서 온갖 무법자 노릇을 하며 제멋대로 사는 밤나무의 모습과 다름 없었다. 그러다 받아들이는 용기를 지닌 대나무 같은 선배들을 통해 내가 아닌 우리를 향한 조직 생활의 참맛을 깨닫고 실천하게 되었다.

우리는(인간) 왜 나무를 보면 인생을 통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자연스레 내 가슴에 스며들고 있었다. 역경과 시련 즉 혼들리면서 더 성장한다는 점, 무엇보다 기본이(뿌리) 탄탄해야 더 견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한 인간의 인생 노래와 그 곡조를 같아했다. 매일 마주하는 민원인과의 관계적 실타래도 그 바늘로(나무의 철학) 풀 수 있겠다는 용단이 생기고 있었다. 한때는 소위 악성, 고성高聲 민원인은 공직자의(나무) 성장에 그와 같은 민원인은 필요 없는 존재라고만 여긴 적이 있었다. 하지만 때론 쓴소리처럼 들리는 민원인의 모습을 통해 법을 더 들여다볼 수 있었고, 경청하는 자세를 통해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헤아리게 되었으니 결국 민원인 한분 한분이 나의(나무) 성장에 필요한 요소라고(온도, 습도, 토양 등) 생각의 전환을 이루게 되어 참 소중하게 다가왔다. 한 나무가(공직자) 올바르게 생장하려면 이를 둘러싼 여러 환경이(민원인)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세상의 이치를 나무로 배우게 된 것이다.

우리구 건물 1층에 가면 민원인이 직원에게 칭찬·격려하는 제도인‘해피트리’가 조성돼 있다. 얼마 전 민원의 최전선인 제증명 업무로 민원인으로부터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한 어르신께서 적은 나의 칭찬 글을 보며 눈물을 훔친 적이 있다. 그 눈물은 공무원·주민과의 소통과 격려를 나무라는 매개체로 이었다는 데 그 의의가 충만한 대표적인 나무 행정 실천의 모습이라 더 가치가 있었다. 이에 착안해 동기同期와 난 서로를 복돋기 위해 칭찬 글을 게재했다. 이는 나무라는 포용성 있는 특성을 통해 사람 간의 유대紐帶를 형성하게 된 긍정적 효과였다. 또한 고층빌딩이 가득한 강남의 선입견을 뛰어넘어 구區와 의회에서 매년 행하는 자연과의(나무) 동행인 나무심기라는 혜안은 디지털 시대에도 필수적인 나무의 존재를 각인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기억되고 있다. 특히나 층간 소음 등으로 이웃 간의 불신이 팽배한 지금, 뜻있는 동네 주민·또래들과 나무 심기 실천을 통해 소통과 배려, 존중을 키워나가는 나의 실천력은 실질적인 환경 보호는 물론 궁극적으로 이웃 간 오해를 이해로,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전환하는 나무의 넉넉함을 극대화한 사례로 빛나고 있다.

말 없는 나무를 오랜 시간 지켜본 저자의 결심은 뜻밖의 시선을 던져주기도 하지만 이 또한 나의 수긍을 얻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나무의 태도를 인정하

는 것. 수명이 다해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나무에 치료 대신 놓아줌을 택한 저자의 끄덕임은 가야 할 때를 아는 한 인간의 승고함으로까지 표현된 것이다. 정답은 없다. 우린 각자가 심은 나무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곁보기에 답답해 보여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바보가 되리라 다짐한 노간주나무 같은 H 선배, 얼굴만 봐도 웃음을 유발하는 생강나무 같은 J 후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가고자 하는 공직 생활을 묵묵히 해나가신 회양목 같은 P 계장님. 각자의 모습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결국 전나무처럼 함께 어우러져 역경을 이겨내고 굳건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라는 걸. 중요한 건 나무의 이름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라는 것을…

오늘도 찾아온 8시 50분, ‘난 오늘 동료와 민원인에게 어떤 나무로 기억될 수 있을까?’라는 행복한 상상이 그간의 긴 한숨을 대체한다. 문득 생전生前 할머니께서 병상에 계시던 ○○병원 앞 이팝나무가 떠오른다. 피는 꽃 모양이 밥공기가 수북이 담겨 있는 걸닮아서 예전에는 ‘이밥나무’라고 불렸다고 한다. 못 먹어 배고팠던 시절 이팝나무에 꽃이 많이 피길 바랐던 할머니의 소원처럼 나 또한 그간의 공직 생활 동안 가꾼 나무를(동료·민원인과의 관계) 아끼고 잘 가꾸어 나만의 꽃을 계속 피워 나갈 것을 소원한다.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 나무에서 가장 높이 솟은 가지인 우듬지처럼 가장 먼저 비를 맞고 햇빛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동료·담당자로 기억되고 싶다.

5년 만에 목백합 앞에 섰다. C 팀장님이 아른거린다. 필요 없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동료 한명 한명이 소중하다는 존중과 배려의 원천을 잊지 않은 그 절개가 전자기기에만 가 있는 우리의 시선을 나무로 향하게 한다. 목백합의 뜻을 찾아본다. ‘순수’공직에 입문한 첫날 다짐했던 내 모습이 그립다고 나무가 내게 속삭이고 있다.

독서감상문

- ▶ 도서명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
- ▶ 저자 다우치마나부
- ▶ 출판사 북모먼트
- ▶ 출판연도 2024.6.10.



- ▶ 부서 지방소득세과
- ▶ 직급 세무7급
- ▶ 성명 이현영

“일을 한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나는 나지막히 중얼거렸다.

유토도 중얼거린다.

“사회는 우리 스스로 만든다.”

유토는 다시 한번 ‘귀찮네. 정말’이라고 중얼거리며 자전거에서 내린 후 쓰러져있던 다른 자전거에도 손을 뻗어 한 대씩 일으켜 세워나갔다. 어떤 핸들은 무겁고 차가웠지만 조금이나마 사회를 알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얼마 전에 종합 소득세를 납부했는데요.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 해야해야 할까요?” “제가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있는데 얼마를 환급받을 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 지금 뭐하는거야. 난 체납을 안하는데 체납고지서를 보내면 어떻게 해! 분명히 납부했다고 다시 살펴봐!”

뜨거운 무더위가 한창인 8월 중순, 전화기에서도 열기가 난다.

‘그래 정신차리자’ 난 고개를 한번 흔들고는 어제 받았던 월급에 대해 생각하고는 다시 일을 시작한다.

“우린 결국 도넛을 만드는 거야”

책에서 부자 보스가 말한 문장이 자꾸 떠오른다.

“도넛을 사거나 재료를 살 때 돈과 교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돈이 차례로 흘러가서 도넛 가게, 밀가루 공장, 밀 농장으로 세명에게로 갔어.”

결국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이 일을 해서 도넛이 완성되는 게 목적 이야.”

그럼... 공무원인 나는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지?

나는 믹스커피를 휘저으며 보스의 말을 곰곰이 떠올린다.

저녁 10시, 잠들기 전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보스가 침대 위 나에게 조용히 말한다. “빵가게 주인이 빵을 만들고 네가 세금 안내를 위해 네 시간을 쓰는 것도, 다 돈이라는 도구가 존재해서야. 돈은 차갑지 않아! 돈은 모두를 연결시키는 힘이 있어.” 보스의 말에 유토와 내가 고개를 끄덕인다. 보스는 신나서 계속 말한다.

“그리고 돈을 지불하는 건 누군가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있고, 배관공이 있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건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받는 사람들이야!”

유토가 고개를 갸우뚱한다. 나도 따라서 고개를 갸우뚱한다.

물음표가 떠오른다.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월급을 받는 걸까?”

2025.8.22일

신고서를 접수하고 싶어요 납부서 보내주세요

납부서를 팩스로 보내주세요

위택스 신고가 안되요. 사업장 등록해주세요.

휴 바쁘다 바빠! 왜 이렇게 문제 투성이일까? 어탓? 문제?

그래! 나는 민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다. 보스의 말이 떠오른다. 아! 나는 납세자를 돋고 그들이 행정서비스와 정당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돋는 사람이구나. 무릎을 탁 쳤다.

내 삶에도 적용되는 보스의 다음 말들이 더욱 궁금해진다.

후다닥 점심을 해치우고 책을 떴다.

“물이 흘러가는 과정에 물이 고이기 쉬운 곳은 호수가 되고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을 말라버려. 격차는 그렇게 확장되는 거야. 지역에서 돈을 쓰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그러나 반대가 되면 돈이 밖으로 흘러나가 지역이 가라앉아버려. 그렇게 지역 격차는 커지는 거야. 그렇지만 걱정마! 말라붙은 곳을 윤택하게 만들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바로 재분배의 비, 세금이야!”

조금 전까지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인이 떠올랐고, 내 월급에 매달 일정 금액 떼어가는 건강보험료와 소득세가 생각났다. 떼어가는 세금이 많으니 나 또한 불만이 있었다. 그런 내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보스가 말한다.

“세금이 비를 내려서 재분배하고 있는 거야! 연금의 일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다자녀가정에 제공되는 지원금 등이야!”

“그럼 저도 그 비를 맞고있는 건가요?” 유토가 나를 대신해 묻는다.

물보라가 일 듯 내 생각도 같이 출렁인다. 보스는 바로 답을 준다.

“그럼~. 공무원의 월급이나 공공사업에 쓰이는 돈도 격차를 줄여, 치안이 불안한 나라면 보디ガ드를 고용할 수 있는 부자만이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거야. 도서관, 도로 같은 공공설비 또한 그렇지. 격차를 줄이는 거야.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의 투표로 결정되는 거고! 정부가 무엇에 돈을 쓰는지가 중요해! 소비와 투자의 흐름에 따라 미래가 선택되는 거야!” 보스는 말한다.

전율이 돋는다.

이 책은 가르침이 아니다.

내 삶을 서술하고 있다.

내 일상을 꾸려나가게 해주는 월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내 월급이 돈 이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내가 돈을 쓰는 방향에 따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나침반처럼 말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이 쓰이는 방향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았다. 이 책은 이렇게 읽힌다. 아니 주인공 보스는 이렇게도 말한다.

나는 단순히 근로소득을 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돋고 있다고 했다.

이 책은 돈이 아닌, 우리 삶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다시 쓰여야 한다.

그래서 내가 부제목을 붙이기로 한다.

“주무관의 일과 월급, 그리고 행정서비스” 또는 “따뜻한 돈, 세금”

나는 도넛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나는 조세 안정 및 조세 형평을 위한, 나라의 치안을 위해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내가 손이 되어 걷는 세금은 복지, 보조금, 공공시설 등 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쓰일 것이다.

그렇게 재분배의 봄비처럼 뿌려질 것이다.

차갑고 시리던 세금이 따뜻한 감촉의 세금으로 다가온다.

나는 또한 돋는 사람이다

정확하게, 쉽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돈을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하며 나는 매달 같은 시기에 같은 근로소득을 받는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다.

나의 직업은 모두가 행복한 도넛을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난 그 하나 하나의 도넛을 가득 넣은 도넛박스를 받기 위해 오늘도 택배를 기다린다.

독서감상문

- ▶ 도서명 첫 여름, 완주
- ▶ 저자 김금희
- ▶ 출판사 무제
- ▶ 출판연도 2024.6.10.



- ▶ 부서 지방소득세과
- ▶ 직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 성명 김다윤

유달리도 무더운 이번 여름, 찌더운 날씨가 장기간 이어지는 탓인지 유독 지치는 듯한 요즘이다. 출근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저녁에는 그저 축 처져 있는 날이 거의 매일이었다.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출퇴근하는 단조로운 생활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냥 바로 침대에 쓰러진다. 뻔한 루틴과 규칙 안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건 맞지만 무언가 공허함을 느낀다. 과연 오늘 하루 내가 진짜 ‘살아낸’ 건지, ‘흘려보낸’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매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그래도 꾸준히 독서하는 습관을 놓지 않으려던 나의 눈에 든 책이 있었다. 『첫 여름, 완주』. 제목이 뭔가 독특했다. 처음에는 무언가를 완주하는 주제의 에세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소설이었다.

‘첫 여름, 완주’. 이 제목이 주는 느낌이 참 묘했다. ‘첫 여름’이라는 말에서 뭔가 새로운 시작 같은 기대감도 들었고, ‘완주’라는 단어에서는 끝맺음 같은 안도감이 느껴졌다. 지금의 나는 아마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책은 원래 오디오북으로 먼저 만들어진 작품이었다. 시각장애인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집필된 소설이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글을 읽을 때 마치 누군가 옆에서 차근차근 이야기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주인공 손열매는 룸메이트가 빚을 남기고 사라지면서 어쩔 수 없이 완주라는 마을로 향하게 된다. 그곳에서 장의사 겸 매점을 맡게 되며,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주한다.

처음엔 ‘아, 전형적인 도시 사람이 시골로 내려가서 치유받는 이야기구나’ 싶었다. 그런데 읽어보니 전혀 뻔하지 않았다. 완주 마을은 단순히 평화롭고 고요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에도 복잡한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가 읽히면서 예상 밖의 결이 만들어졌다.

특히 인상 깊었던 캐릭터는 중학생 양미였다. 춤을 좋아하고 슬픈 이야기는 싫어한다는 이 아이가, 혼자서 계속 춤을 추는 장면들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왜 춤을 추는지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춤을 춘다.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은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내 모습이 같이 떠올랐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직장에서도, 친구들과 있을 때도, 가족들 앞에서도 계속해서 문제 없는 척, 다 잘하고 있는 척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사실 속으로는 가끔 멈춰서 쉬고 싶고,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고 싶으면서도, 멈추는 순간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불안 때문에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책에서 계속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소리’와 ‘목소리’다. 일하면서 나도 목소리에 대해 생각할 때가 많다. 민원인을 상대할 때는 최대한 친절하고 공정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한다. 상급자 앞에서는 공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동료들과는 편안한 목소리를. 그런데 가끔은 내 진짜 목소리가 뭔지 모르겠을 때도 있다.

완주 마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것이 때로는 춤으로, 때로는 요리로, 때로는 그냥 누군가 곁에 있어 주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완주 마을 자체가 하나의 캐릭터처럼 느껴졌다. 이 마을은 누군가를 얹지로 달리라고, 달려야 한다고 재촉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서서 “여기 좀 앉아서 쉬어가”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곳이었다.

솔직히 나는 요즘 늘 ‘더 해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 해’라는 생각으로 살았다. 주변에서도 “당연히 지금보다는 더 노력해야지”, “자격증이라도 더 따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지금도 나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먼저 듦다.

그런데 이 완주 마을을 보니, ‘그만해도 돼, 지금도 잘하고 있어’라는 말이 이렇게도 위로가 될 수 있구나 싶었다. 누군가 내게 “현재도 나름 잘하고 있어”,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큰 위안이 됐다.

이 소설에서 가장 좋았던 건,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었다. 매점에서 과자를 팔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고, 함께 밥을 먹고, 그런 평범한 일들이 오히려 삶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였다.

직장생활하며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정말 비슷하다.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민원 응대하고, 퇴근하고. 그런 일상이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평범한 일상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됐다.

- 책을 다 읽고 나서 ‘완주’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이 소설에서의 ‘완주’는 빠르게 달려서 끝내는 완성점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는 지점 같았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갈 길을 천천히 생각해보는 휴게소 같은 곳.

- 그래서 요즘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 보려고 한다. “나 지금 어디쯤 왔을까?” “혹시 너무 오래 달리기만 한 건 아닐까?” “잠깐 주변을 둘러볼 여유를 가져도 되는 건 아닐까?”

『첫 여름, 완주』는 그런 질문들을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남겨준 책이라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내가 내 속도로 걸어가도 괜찮다고, 그렇게 천천히라도 완주할 수 있다고 말해준다.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도 된다고.

이번 여름, 나도 완주라는 마을에서 잠깐 쉬어가는 기분으로, 그 말 한마디를 꽤 오래 붙잡고 가보려고 한다.

“지금도 충분해. 잘하고 있어.”

**강남구 지방세발전 연구동아리
2025 강남 드림 택스
AI가 전하는 강남세무행정 이야기**

2026년 1월 16일 인쇄

2026년 1월 23일 발행

발행인 심혁보 강남지방세발전연구동아리 회장

편집위원 윤미라 부회장, 임현희 간사

편집인 김정모, 정혜린

발행처 강남구 지방세발전연구동아리 강남드림택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1)

TEL 02-3423-5449

FAX 02-3423-8919

인쇄 경성문화사(02-786-2999)

※ 본 보고서의 판권과 내용을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복사 배포할 수 없음.

